





은혜의 강물

이영길 목사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한복음 19:34)

Boston College에서 가르쳤던 Sebastian Moore신부님이 로마 어느 수도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때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을 성가대가 찬미(Chant)하고 있었습니다. 그 찬미를 들으면서 바로 본인 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는 장면을 체험합니다.

‘죄의 무죄함’ …, 그러나 바로 그 때 ‘쏟아져 내리는 은혜의 강물’을 느낍니다. 그 후 그는 깊은 영성가가 되어서 기독교계에 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주님으로 인해 ‘죄의 무죄함’이 ‘은혜의 강물’이 된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사순절은 곧 ‘죄의 무죄함’이라는 강물이 어느덧 ‘은혜의 강물’로 변해 있는 것을 체험하는 기간인 줄 압니다. 올해 사순절 기간 우리들의 ‘죄악의 무죄함’이 어느덧 주님으로 인해 ‘은혜의 강물’이 된 것을 고백하십시오. 이 놀라운 고백은 거저 나오지 않습니다. 깊은 묵상으로 인해 나옵니다.

묵상 가운데 우리들의 죄악의 무죄함을 찾아 가십시오. 어느덧 은혜의 강물 위에 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올해도 수고해 주신 홍보위원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5)

좁고 얼어 뻘뻘해진 땅,
죽은 듯 간신히 숨을 내 뱉는 땅에
손 내밀어
모두가 죽었다고 할 때
살아계심을 보이신 주님

무더진 마음으로
생명없는 낙엽처럼 구르다
텅 빈 마음으로
험한 십자가의 한 자락에 웅크리는 내 영혼
십자가 앞에서
또 넘어져
세상 노래에 춤을 추다가
다시
십자가 앞에 멈추고서야 흐르는 눈물..

아무리 생각해도
어찌 나같은 죄인을 위해 그 어려운 길을 가셨는지 ...
또아리를 틀고 앉아 그 세상이 다인냥,
저 밖에 모르는 이 악하고 약한 나를 위해..

사람되어 낮은 곳에서
손 발 묶인 어린양 되어
고개 떨구고 가셔야 했던 길에..
주님의 피가 꽃이되어 고통의 길에 뿌려지고..
왜...
왜...

십자가를 지고 걷다 놀려 넘어질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채찍에 온 몸이 피로 맺힐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대못으로 손과 발이 으스러 질 ...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죄에서 구할 수만 있다면 백 번이고 천 번이고..바보처럼.. 같은 길을..또.. 가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의 십자가를 끌어 안으시어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주님의 향기로 서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아멘



그리스도인의 사랑

신준섭 집사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갈라디아서 6:14)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연휴기간 동안 아내와 함께 캐나다 여행을 다녀오다가 눈 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며, 그 분께서 원하신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것이 내 생명이라는, 평생 교회에서 들어서 진부하게 들리기까지 했던 그 말이 처음으로 피부로 와 닿았던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때에, 아무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께서 부르시는 그 날이 오면, 그 어느 누구도 피해 갈 수 없음을 저에게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시고, 지금까지 과연 제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왔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사신 구원이라는 값비싼 선물을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주 예수님을 찬송하고 자랑하기보다는 무슨 자격이 되어 특권을 얻은 사람 마냥 제가 받은 구원을 당연히 여기며, 구원의 감격을 상실한 채 신앙생활을 하며 지내온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잊어버리고, 결국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아등바등 발버둥치며 살기 바빴던 저의 부끄러운 모습들과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세속적 성공을 최고의 자랑거리로 삼는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자유 하지 못하고 휘둘리며 고전하고 있는 저에게 진리, 영생, 사랑, 섬김을 가르치시고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갈 6:14)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좁쌀보다 작은 저의 초라한 믿음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과격한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신앙인으로서 불품없는 저의 모습들을 마주하게 하시고, 제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보다는 항상 제 자신의 자랑과 영광, 그리고 번영이 더 중요한 구제불능의 죄인임을 지속적으로 폭로하셔서, 십자가의 은혜 밖에 답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번 사순절을 준비하며,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위해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주옥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개인적인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정소현 집사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1: 1-3)

시편1편의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복들에 대한 언급이 성경말씀에는 지속적으로 수 없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기도 책’ 혹은 이스라엘의 예배시에 불러졌던 “찬송 책”으로 이해되고 있는 시편의 가장 처음에 시편 저자는 먼저 “복”에 대한 이야기로 기도와 찬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라는 것을 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넘치는 풍성한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은 필요조건을 세워놓으셨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없이는 이 인생의 파도를 살아갈 방도가 없고 능력이 없기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좀 편안해지고 고민거리가 해결되면 금세 하나님(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교만해지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교만해져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행하여서 결국 세상의 꾀와 태도를 따라가고 오류를 반복하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놓치게 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6) 라는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따라 사는 것 만이 인생에서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시편 19:7) 완전하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그것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을 두는 것이 당장은 열매가 없어 보이고 손해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입고 사는 길이며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길임을 다시 마음에 새겨봅시다.

날마다 주님의 지혜와 권고하심에 귀 기울이는 겸손한자가 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친밀히 알고 교제하면서 약속하신 영육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고싶지 않은 일과 해야 할 일

최학수 집사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마태복음 26:39)

자. 지금부터 집사회 회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자, 어떤 집사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했다. “예배는 service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도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 집사회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 깊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성도를 함께 “serve”하는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집사님”들 이시죠? 우리 한번 과거를 돌이켜 보도록 하죠. 처음 집사의 직분에 대한 수락여부를 묻는 편지를 받고 고민하지 않으셨던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드렸던 답변은 “저는 자격이 없고… 아직 준비가 안되어서…” 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현재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준비되어서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집사라는 직분에 너무 익숙해진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저희를 집사로 세우시고 하나씩 가르쳐 나가십니다. 집사회 회장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손ㅇ 집사님이 그러더군요. 준비된 회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직분을 통해 그를 배우게 하고 그 직분에 맞게 성장시킨다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함께 집사회를 섬기면 어떨까요? 회장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말이죠.”

이렇게 다른 집사님들을 독려한 사람이 다름아닌 최ㅇ 집사였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회장후보 추천에 다른 3명의 후보와 함께 이름이 올라갔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회장 후보가 되자 여러가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렇게 집사의 본분을 강조해 놓은 사람이 본인은 하지 못하겠다는 가증스러운 역설을 하다니...

집사회회장 후보의 변: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작년 회장후보의 변에서 말씀드렸 듯이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기어다닐 수 있는 깨끗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어도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교회의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일입니다. 2010년부터 부청을 섬겼고, 부청 졸업 후에는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데, 다음엔 유스 그룹을, 그리고 그 후엔 해바라기 주일학교, 그리고 영아부를 만들어 섬겨보고 싶습니다. 2014년부터 청소부장4번과 총무2번으로 집사회를 섬겨 왔는데 10년간 집사회를 섬기고 그 후 10년 동안은 남선교회에서 섬기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또 있습니다. 2015년부터 쉼마 행사 위원회에서 서기로 섬기고 있는데 3세대가 함께 하는 교회, 그리고 영어를 쓰는 세대와 한글을 쓰는 우리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예배위원회 소속으로 친교실에 의자를 놓는 일을 최/채 집사님들과 하고 있는데 혹시 눈치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의자를 한 줄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나중엔 어른들 의자를 다 없애고 갓난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드리는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아니 엄마 아빠는 본당에 들어가시고 저희가 상록회 어른들과 함께 발룬티어로 아이들을 돌보는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참 많습니다. 내년엔 새롭게 모실 Janitor와 함께 교회를 깨끗하고 쾌적한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교회의 건물관리 위원회와 함께 수리할 곳을 찾아 주님의 몸 된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저의 꿈들을 이뤄가기 위해 한번만 더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내년에도 회장님을 도와서 “청소부장”의 역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집사회장 후보의 변을 할 때는 나를 자신이 있었다. 집사회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더 낮은 곳에서 섬겨야 하니 회장 말고 청소부장으로 섬기겠다는 말이 나 스스로 멋있어 보였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투표... 최ㅈ, 황ㄷ, 최ㅎ, 채ㅈ, 황ㄷ, 최ㅎ, 최ㅈ, 황ㄷ, 채ㅈ, 최ㅎ... 한번 한번 이름이 불릴 때마다 마음을 조였다. 제발 내가 아니기를... 이렇게 이름이 불리는게 싫었던 적이 있던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결국 그토록 원하지 않던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16:17! 한 표차로 집사회 회장에 당선된 것이다. 내 이름이 회장으로 불리었을 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실망감과 분노가 나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일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제발 집사회 회장만은 저에게서 물려주세요. 저는 정말 하고싶지 않습니다.” 라고...

그런데 총무인 황ㄷ 집사님의 인사의 말이 나의 마음을 울렸다. 최ㅎ 집사님이 못하시면 제가 대신해서라도 한 해 동안 집사회를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없겠는가. 그에게는 변명이 없겠는가. 하지만, 그의 따뜻하고 성숙한 인사의 말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나를 누구보다도 아끼는 전직회장님도 “위로의 말”을 전해주셨다. 누구나 때가 있고, 지금이 최ㅎ 집사가 회장을 할 때인 것 같아서 추천을 한 것이라고... 그러니 “함께” 해나가자고 하셨다. 청소부장은 본인이 해 주시겠다면서... 정말 성숙한 집사의 본을 보여주시는 분의 말씀이 또 한번 나를 울렸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고민하며 기도했다. 주님, 제가 해야만 하나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돌아온 답은 간단하고 명료했다. “난 너를 위해 십자가의 수치와 치욕, 그리고 피를 쏟는 고난을 참아냈다. 난 너를 위해 무얼 할 수 있니? 겨우 일주일에 몇시간 동안 교회를 위해 하는 너의 일이 많다고 불평하는 거니? 너보다 나를 늦게 만난 너의 아내는 썸플라워 주일학교 부장을 하고 있잖니... 누구에게나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일란다.”

솔직히 부끄러웠다. 여전히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해야 하는 일”이기에 한다는 생각에 한없이 부끄러웠다. 먼저 나를 위해 땀과 피를 쏟으신 주님께 부끄러웠다. 그리고, 나보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와이프에게 부끄러웠다. 나보다 먼저 섬기겠다고 약속한 황ㄷ 집사에게 부끄러웠고, 나를 추천하고 집사의 본을 보여주시는 정ㄱ 집사와 손ㅇ 집사에게 부끄러웠다. 그리고, 최ㅎ라는 이름을 적어내신 모든 집사님들께 부끄러웠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사람들과 주님 앞에서 못하겠다고 땀방울을 쏟은 자신에게 부끄러웠다.

그리고 이제는 약속하려고 한다. 부끄럽지 않게 회장으로 섬기겠노라고... 주님께 부끄럽지 않게.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게. 다른 집사님들께 부끄럽지 않게. 사순절을 맞아 기도하며 섬김을 다짐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주님, 또 한번의 사순절을 맞습니다. 단지 주님의 흘린 보혈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닌, 우릴 위해 희생하신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물려 달라고 하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우릴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행하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관용의 기도

김학주 교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하 시느니라” (로마서 8:26)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회개, 용서, 절제, 그리고 금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화해와 사랑으로 채우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며 어느 기도문과 함께 관용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Prayer of Generosity

Lord Jesus, teach me to be generous.

Teach me to serve you as you deserve;

to give and not to count the cost;

to fight and not to heed the wounds;

to toil and not to seek for rest;

to labor and not to ask for rewards

except that of knowing that I do your holy will. -Saint Ignatius of Loyola (1491-1556)

관용의 기도

예수님, 나에게 관용을 가르치소서.

당신에게 합당한 섬김을 가르치소서.

나누어 주되, 그 값을 세지 않게 하시고,

정의의 편에 서되 그로인한 상처를 개이지 않게 하시며,

고생하되, 휴식을 찾지 않게 하소서.

일하되, 보상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가 당신의 거룩한 뜻 만을 행하길 원합니다. -로롤라의 성 이냐시오

이 기도문의 내용을 세상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나누어 주되, 그 값을 세지 않게” 라는 부분에서는 “내 밥그릇 챙기기도 어려운데...”라는 생각이 들고, “정의의 편에 서되, 그로인한 상처를 개이지 않게” 라는 부분에서는 “손해보는 건 싫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고생하되, 휴식을 찾지 않게” 라는 부분에서는 “좀 쉬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일하되, 보상을 구하지 않게” 라는 부분에서는 “이건 뭐 완전 노예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문이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에 감동을 주며 종종 울려 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자칭하는가” 라는 질문의 해답을 찾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순간, 정의의 편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순간, 고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순간, 그리고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순간,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당신의 의중을 살피고 그 뜻을 주신 지혜와 주신 용기로 행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Be Humble

Noelle Rhee (이혜원, 5학년)



“So be humble under God’s powerful hand. Then he will lift you up when the right time comes.” (1Peter5:6)

When I think of Jesus dying on the cross, I think of our sins. I think of this because Jesus died on the cross to save us from our sins. I also think of how grateful I am. He suffered and died just to save us from harm.

During lent I am going to give up Starbucks, Dunkin donuts and other shops like that. Except Boba tea. I am also going to read a chapter from the bible before I sleep every night.

To add on to that, I will pray every morning, and whenever I need comfort.

Heavenly Father, You are all so powerful and we worship you. I am sorry for when I did wrong and I ask that you can forgive me. I ask that I will be humble so you can lift me from the ashes when the time is right. I am humble before you and I ask that you will guide me in your words. In Jesus name, we pray Amen.

Give Thanks

Lulie Lee (이루리, 5학년)

“So be humble under God’s powerful hand. Then he will lift you up when the right time comes.” (1Peter5:6)

I feel thankful for Jesus because he died on the cross to forgive our sins.

He suffered a lot for us when he didn’t have to.

I will give up watching Youtube for 40 days.

I will read a chapter from the bible every night before I go to bed

and I will also pray 3 times a day

Dear God, Thank you for giving us good food. Thank you for sending your Son to save us from our sins. We are very sorry for our bad behavior and our sins. We ask that you forgive us. Please bless all of us. In Jesus name, we pray, Amen.



조약들의 감사

김경희 권사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암흑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굵은 데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사야 42:16)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 가운데에는 기쁨도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크고 작은 고통과 힘듦 상황들이 숨겨져 있기에 알 수 없는 일들이 숨겨져 있는 ‘하루’라는 모퉁이를 돌면서 웃을 일도 있지만 또 답답한 일도 만나게 된다. 그러면서 또 다른 모퉁이를 향한 걸음을 쉬지 않는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세상은 교만, 허영, 거짓, 부패와 물질주의의 유혹들이 가득한 불경건한 바벨론 같이 느껴질 때가 많다. 가끔 그 바벨론 같은 세상이 ‘시련’을 골리앗처럼 앞세우고 나를 위협해 올 때 나는 얼마나 두려워하며 작아졌었는가!

이 아침에 사무엘서를 읽는 동안 나의 축 쳐진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토닥토닥 격려하시는 주님의 따뜻함에 가슴이 벅차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할 때 그의 그 거대한 체구와 야만적인 모습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압도되어 떨며 두려워했다. 다윗은 아직 어리고 전쟁의 경험이 있는 용사가 아니기에 베틀채 같은 창자루와 단창을 들고 있는 거인 골리앗을 쳐다보기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 했었어야 했는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고 겁도 없이 외쳤다. 다윗은 전쟁의 경험대신 자신이 양을 칠 때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때문에 물매와 조약돌 다섯 개에 다시 임할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고 골리앗 앞에 섰다. 만약 내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이 이야기는 끝이 뻗히 보이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장면일 것이다. 그러나 그 다윗과 함께 주님께서 친히 장수가 되셔서 다윗과 함께 서 계시는 보이지 않는 그분이 보이면서 다윗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은 오히려 위대한 용장이 되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다.

나는 어릴 적에 좁고 깊은 우물에 빠졌었고 또 페니실린 쇼크로 죽음의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던 적이 있었다. 십여 년 전에는 온몸에 붉은 발진과 가려움 증으로 10개월 동안 죽음만큼 깊은 괴로움을 겪은 때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의 코에는 아직 따뜻한 호흡이 있다. 죽음에서 나를 건져 내셨던 주님의 큰 은혜와 함께 나의 평생을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로 가득 채우셨던 기억들을 다 잊어버린 사람처럼 왜 나는 작은 시련 앞에서 떨고 있었던 말인가? 내가 받았던 지나간 은혜를 생각할 때 다가올 주님의 은혜를 어찌 신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쳐서 나는 참 은혜를 깨닫지 못한 탕자의 형처럼 집을 떠나지 않고도 집을 떠났던 동생보다 더 배은망덕한 탕자의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등 뒤의 전쟁은 아랑곳없이 맑은 물 속을 들여다보며 물살에 잘 깔리고 다듬어진 매끄러운 돌을 고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전쟁을 준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즐즐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나도 나의 기도의 바구니에 감사의 열매를 가득 담아 주님께 올려 드린다.

굵고 모난 돌같은 내! 잔잔한 시냇가의 굵고 매끄러운 조약돌이 되기까지 거센 물결을 타고 깊은 계곡에서부터 골짜기의 큰 바위에 이리저리 부딪치며 깎이고 또 다듬어질 때에 한숨보다는 다가올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의 기도로 견디게 하소서, 고집스러운 나를 부수고 깎아내리는 거센 물결을 이제 더 이상 아파하지 않게 하소서, 이 모난 돌을 깎으시며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눈물 시내를 골고다에서 시작된 주님의 핏방울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잔잔한 시냇가에서 굵고 매끈한 조약돌이 되어 주님의 손에 잡히기까지 그리하셔도 나로 하여금 지나간 은혜와 다가올 소망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나를 떠나지 마소서

김화옥 집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누가복음 5:8)

지난해 2월 중순입니다. 이영길목사님 설교였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8절이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모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진 베드로와 일행은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크게 놀랐고 두려웠을게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애걸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저는 ‘나를 떠나지 마소서’로 받았습니다. 내귀에는 그렇게 들렸던 겁니다. 분명, 두려움과 놀라움이 아쉬움과 뒤섞였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성경을 제멋대로 읽고 해석하고자 하는 망발은 없습니다. 제가 받은 소감이고 느낌이며 믿음일 뿐입니다.

절망이며 절세의 시라면 소월의 진달래꽃이 있습니다. 떠나지 말라는 간곡함을 오히려 고히 보내리라고 말했다지요. 역설입니다만 저 한테도 그렇게 읽힙니다. 해석은 분분한데, 시를 어디 해석으로 읽겠습니까? 그저 보내고 떠나는 자의 마음만 얼핏 엿보고 있고요. 님을 떠나 보내는 이는 분명 베드로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김소월, 진달래꽃)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는 울먹이며 말했을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설령 떠나시더라도, 곧 돌아오소서 라고 말입니다.

소월이 떠나 보낸 님도 분명 되돌아왔을 겁니다. 예수님은 곧 돌아오셨고, 아직도 살아 계셔서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주여,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여 제가 역겹더라도 다시는 떠나지 마소서.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나 보기가 역겨워 떠나시는 주님. 떠나시더라도 다시 돌아 오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박민제 교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이다.”
(아모스 5:24)

2019년은 한국 영화계에 특별한 한 해였다. 한국에서 영화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으며 세계 최고 영화제 중 하나인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최초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바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Parasite> 영화 이야기다. 이 영화는 이례적으로 미국에서도 흥행을 거두었고 골든글러브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고 아카데미에서도 수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무엇이 이 영화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만들었을까?

영화의 주인공은 크게 두 가족이다. 한 가족은 ‘하늘만 보이는’ 평창동 저택에 살고 있고 다른 한 가족은 다른 건물들에 가려 ‘하늘이 보이지 않는’ 이름 모를 동네 반지하 셋방에 살고 있다. 지극히 한국적인 배경의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아시아 영화가 성공하기 힘든 미국에서조차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영화가 많은 나라들의 공통된 문제인 빈부격차와 사회 양극화 문제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봉준호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 영화를 보고 난 후 Route 9을 타고 교회로 오는 길에 Wellesley Hills와 Chestnut Hill을 지나오며 2020년 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이 떠올랐다. 만약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현재 보스턴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Wellesley Hills나 Chestnut Hill 쪽에 오셨을까? 아니면 언덕 아래 Roxbury로 오셨을까? 요한복음 1장 46절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는 나다니엘의 물음을 생각해 보면 답은 명확해 보인다. 우리가 잘 알 듯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몸이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세리와 죄인 (막 2:15) 등 당시 사회적 약자들과 더 많이 어울리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당시 가장 흉악범들에게 내려지는 십자가를 몸소 지셨다.

지금까지 추상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믿음의 관점에서, 개인의 문제로만 다가왔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다가왔다. 무엇보다 2020년 전과 다르지 않게 여전히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는 오늘날의 현실이 마음 아프게 다가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회들은,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해답을 주지 않을까?

“Love your neighbors as yourself.” (레 19:18, 마 22:39, 약 2:8)

박득훈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며 보다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예컨대 자신이 좋은 교육환경을 누리고 싶다면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누리게 하며, 내가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이 똑같이 누리게 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이다¹.

¹ 박득훈, <돈에서 해방된 교회>, 308쪽.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실 가능성이 매우 낮은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마땅히 실천해야 할 말씀이 아닐까?

우리의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군의 학교로 가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보단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아이들 모두가 차별 없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게 현 시대의 크리스천들의 역할이 아닐까? 최근에 한 아이의 부모가 된 나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이자 기도제목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봉준호 감독이 그의 영화에서 보여준 사회의 불평등과 계층 간 갈등을 회복하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노력과 고민의 흔적이 가득한 오늘날의 교회가 되길 소망해본다. 아래 시의 평평한 물처럼...

〈평평한 물〉 홍순관

물은 서로 평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평이 기울면 다 그리로 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물이 걷는 것도 달리는 것도 다 평평해지려고 가는 길입니다.
흐르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머무는 것도 다 평평하기 위해서지요.
평평하여질 때 물은 비로소 그 길을 멈춥니다.
그러나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서지요. 조금이라도 평평함이 깨어지면 곧 떠나고 맙니다.

물은 평편(平便)하려고 평평(平平)합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을 회개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회 계층 간 격차와 갈등을 회복하는 십자가를 앞장서 지고 가는 오늘날 교회들이 되게 해 주세요. 아멘



노인이 굴러 떨어지는...

김현지 권사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아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시편 31: 15)

늙어서의 삶이란 젊었을 때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많은 장애가 다음 다음으로 몰려온다. 건망증으로 시작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지고 허리와 다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기본이고 ‘한 해 한 해’의 변화가 ‘날마다 날마다’ 가 되니 날로 날로 폐인의 길을 막을 수 없다. 낙심하고 체념하고 슬퍼할 수록 가속도로 굴러 떨어져 내려간다. 이 길만큼은 자식도 친구도 그 아무도 도와 막아주는 사람이 없다.

훌륭하다는 안과 의사를 찾아서 자식들이 서울에 보내줘서 갔더니 남편을 먼저 보낸 동생이 2년 동안 신, 구약 성경 필사 생활로 위로 받으면서 기도 생활로 새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았다. “나도” 하는 생각에 집에 돌아와서 시작이 반이라, 있는 화선지에 창세기부터 시작했는데 잘 아는 요셉 이야기로부터 나오는 관계없다는 지루한 생각이 들더니 힘들기 시작했다. 며칠을 쉬었다. 보이지 않는 애꾸 눈으로 보람은 커녕 줄줄 읽기보다 손해가 많다. 다음의 출애굽기는 지루한 마음이 앞선다. 창세기도 중단하고 책상 위를 거두려고 하면서도 습관적인 새벽기도는 여전히 계속하면서 보이지 않는 눈으로 뻥이 아는 성경을 쓰기에는 너무 힘이 든다고 호소하였다.

며칠 기도하는 중에 슬그머니 좋아하는 시편이라도 시작한 김에 거두기 전에 한번 더 시도할 생각이 들어서 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아가면서, 감사도 하면서 그 긴 시편이 어느 사이에 끝을 맺었다. 어머니!! 그게 아니구나, 읽기와 쓰기의 차이는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

우선 쓸데없는 늙은 폐인에게 “환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는 말씀에 귀가 뿡 뚫리는... 어려서 부터 할머니와 어머니의 성화에 수없이 줄줄 읽는 말씀들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감격 반, 감사 반의 기도가 그치지 않는다. 기쁨이 넘치고 이 놀라운 약속을 손으로 적고는 그 옛날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오늘까지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내게도 약속하여 주심을 꼭 믿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약속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글로만 아니고 음성으로 큰 일, 작은 일에 할 것 없이 삶을 함께해 주신다.

“주님” 하고 부를 때 마다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쁜 감사의 매일에, 짹짹이 쉬지 않고 주님과 이야기 하는 필사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두번째. 며칠 전 1월 18일에 끝을 맺고, 기도하면서 쓰면서 은혜 받고 줄을 친 시편 145:18-21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와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다른 글은 읽지 못하는데 천천히 보면서 위로 받고 감사할 수 있음을 감사한다.

놀랍고 감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가능한 꿈을 접어가는 기도의 지팡이를 쉬지 않고 짚으면서 올라가는 길은 빛나고 아름다운 길이다. 2회의 신, 구약 쓰기에서 얻은 하나님의 틀림없는 폐인인 노인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한 두 마디가 아니고 많은 약속들을 다 기록 못하고 (애꾸눈이 쓰리고 아파서 보이지 않음) 많은 여러분이 성경 필사의 신나는 용기와 소망의 삶을 소개하고 권한다.

나의 경우 줄줄 읽을 때보다 백배 다른 기도의 힘과, 높은 곳을 향해 걸을 때 기쁨의 창가가 작사, 작곡자가 되었다. 살면서의 마음 가짐, 자세가 달라진다. 성서쓰기로 인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에 무딘 글로 표현은 못하고 혼자 가슴이 뚫다. 90세 나이에 구애없이 3번째 성경전서 필사에 도전할 욕심에 기도하고 있다.

임마누엘!! 감사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한문수 장로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여호수아 1:5-6)

대학과 대학원때 가장 믿고 따르던 같은 과 선배형이 있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어떤 고민이 있어도 그 어떤 실수를 했어도 다 들어주고 난 뒤에 한마디 “응 참아.” 그 한마디를 해 주던 선배형이다.

어느 순간부터 이영길 목사님께서 “좋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오래전 “응 참아” 라고 말해 주었던 그 선배형의 말이 생각났고 분명 일맥 상통하는 말이기에도 계속적으로 마음속에 머물러 있으며 목상을 하게 되었다.

오래전 대학생 때의 일이다. 졸업 이후에 어떤 길을 가야 할까? 군대는 언제 다녀와야 할까? 고민 끝에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정했는데 군입대가 연기되는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시험이 만만하지 않았다. 군입대 연기하고 대학원 진학 준비하는 같은 과 동기들이 100여명이나 되었고 그중 5-7명 정도만 합격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미래가 많이 불안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할 때 그 선배형은 종종 밥과 대학생들이 주로 마시는 음료를 셀 수도 없이 많이 사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 주었다. 나는 주로 불안함과 고민을 이야기했고 그 형의 대답은 늘 똑 같이 “응 괜찮아”, “다 잘 될 테니 그냥 하면 돼” 였다. 참으로 신기 하게도 그 형의 한마디, “응 괜찮아”는 늘 힘이 되었고 나 자신도 괜찮다고 느끼며 실제로 다 괜찮게 되었다. 결국 대학원에서 그 형과 같은 전공을 선택하였고 지도 교수님도 같은 교수님을 모시는 같은 사문(동일한 지도 교수님의 학생들)이 되었다. 미국으로 유학오기 직전까지 그 교수님 지도하에 박사과정까지 하였다. 그 교수님은 나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해 주셨으며 지금도 한국 방문 할 때마다 꼭 찾아 뵙곤 한다. 또한 보스턴에서 교직을 잡고 집을 샀을 때 매우 기뻐하시며 우리집에까지 방문하셔서 축하해 주셨던 분이시다.

매년 사순절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근신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며 경건과 절제, 희생과 나눔 등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기이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최소한 내 주위에 있는 분들께 진심으로 “좋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라는 말을 나눠 드리고 싶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라고 약속하셨으니 모든 것이 다 잘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오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로 “좋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라는 말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는
우리를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시험을 받으시더라: 주리심

이영길 목사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 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하매 주리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1-4)

사순절은 어떻게 지내야 하는 것인지, 광야에서 시험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중략)

성령은 예수를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에서는 ‘이끌리시다’로 표현했지만 마가복음은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2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대관식을 마치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할까 계획도 아직 세우지 않았는데, 그냥 성령이 몰아내셨습니다. 성령의 Tornado를 맞은 것입니다. Tornado를 맞고 요단강에서 광야로 내던져진 것입니다. 왕궁은 커녕... 그러면 왜 광야로 쫓겨 갔을까요? 막 대관식을 마친 왕이 되셨는데...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시험을 받으시기 위하여...

저는 군의관으로서 비교적 쉬운 군대 훈련을 받았습니다. 쉬운 훈련이면서도 저에게는 아주 고되더라고요. 일반 장교들은 더 고된 훈련을 받으셨을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과 장교들의 훈련에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장교들은 먼저 훈련을 받습니다. 받고 합격한 사람들만이 장교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례를 먼저 받았습니다. 먼저 대관식을 통해서 왕이 되셨습니다. 왕이 되신 다음에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관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대관식은 치른 것입니다. 대관식을 치른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바로 사순절에 동참하는 특권인 것입니다.

올해 모든 분들이 각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순절을 지키고 계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순절을 잘 지키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사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왕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왕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온 인류는 죽어가지만 당신 혼자 굳건히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에 마귀는 당연히 주님의 이런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합니다. 마귀는 이미 자신은 영벌에 처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만 영벌에 처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도 자기의 친구가 되길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 첫번째 시험을 걸어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사실 주님은 장장 40일간 굶으셨을 때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기가 막힌 시험입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도 하고 스스로 허기진 것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곧 당신의 능력을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하등 잘못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입니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의 영광과 행복을 위해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속이면서 번 돈이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마귀의 첫번째 시험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마귀의 마법에 붙잡혀 있는 우리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 낼 것 다 내고 십일조 등 헌금 낼 것 다 내면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순절을 통해 그동안 하나님께 성경말씀대로 드리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려고 사순절을 지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상시에도 언제나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너 드릴거 다 드렸어. 이제는 너만을 위해 살아.” 이와 같은 마귀의 교묘한 말을 구분하는 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기도 중 대부분이 나를 위해 돌을 떡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이 마귀의 첫번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고 가는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험을 받을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통과하셨는지 살펴보면 크게 도움이 될 줄 압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없다던가 아니면 만들 수는 있는데 그러기 싫다던가 말씀하셔야 하는데 살짝 말을 돌리십니다. 대신 신명기 8:3절 말씀으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마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 답변으로 case가 close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인데... 제가 마귀라면 이렇게 대꾸하였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그 뜻은 떡으로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세요. 아마 그런 능력이 없나 보네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보네요?”

그런데 사탄은 왜 아무 대꾸를 안 했을까요? 저보다 지혜가 없어서...?

교우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뜻은 떡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과 말씀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떡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떡도 먹고 말씀도 먹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먹고 마시는 모든 행위를 자신을 위해서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허기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시험한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나는 나만을 위해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계속 굶주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는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이제 이 시험을 통과하신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서 이웃을 위한 떡을 만드는 certificate을 받으신 것입니다.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

<2019. 3.17- 사순절 둘째 주일 설교 중에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전신애 권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속에서 불안하여 하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2:5)

요즘 TV에서 반려견에 대한 행동치료를 돕는 방송들이 많이 있다. 프로그램에서 보면 분리불안증을 앓고 있는 반려견들이 나타내는 문제로 동물 행동 교정 선생님들께 상담 의뢰하고 치료되어 가는 과정을 방영하는 것이다. 두가지 유형이 있다. 주인으로 부터 너무 사랑을 받아서 주인이 보이지 않으면 바로 불안증으로 유발되는 경우인데, 이때 다른 사람이 있어도 주인이 없으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고, 또 하나의 경우는 그야말로 사람이 없을 때인데, 이때는 주인이 아니어도 사람만 있으면 불안증이 사라진다고 한다. 두가지 경우 모두 불안증의 표현은 대단한 파괴력으로 나타나는데 집안 모든 물건을 물고 뜯고, 대소변을 흘리고 하면서 자기자신도 상처를 크게 입어 치아도 부러지고, 피도 나고 해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심한 마음의 병이다. 보고 있을 때 문득 나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불안감이 쌓일 때가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BNI 성경공부 시간 때 목사님이 질문하셨다.”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느낄 때가 첫째는 평탄하고 모든 것이 잘 풀려서 감사할 것이 많을 때, 둘째는 어렵고(병들었을 때, 경제적 실패 등등) 힘들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다만 어둡고 아무도 없는 방에 갇힌 것 같은 절망속에 있을 때 인가?” 라고 물으셨다. 나는 그 답을 두번째 것으로 했다. 내 경험이다. 짧지 않은 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느낄 때는 오히려 평안 할 때 보다 어렵고 힘이 들 때였다.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어머니가 병환으로 돌아가시고, 내가 암판정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을 때, IMF로 미국에 이민 올 수밖에 없을 때 그 순간에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원망을 마구 쏟아낼 때였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매일 절망감으로 기도조차 할 수 없었다. 내 힘으로 무엇 하나 할 수 없다는 무력감으로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며 성도로서 삶을 잘 살아왔나 돌아보게 되었다. 그때도 빨리 회복하여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마음이었지만, 나를 돌아보면 서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믿음의 실상을 물질의 축복을 주는 신으로 생각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실체와 얼마나 다른지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바뀌었다.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세요. 내가 믿는다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혜사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많은 서적과 성경공부를 하면서 이론적으로 알았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실패한 인생이라 느낄 때 도움이 안되었다. 답은 기도였다. 매일 문제 해결의 기도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싶다고 기도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도로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그때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느꼈을 때가 없다. 돌아온다고 믿기 때문에 반려견이 불안증을 회복하듯 지금의 이 길을 함께 하면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불안하지 않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도의 정체성이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데 있지 않고 환난 중에 기뻐하는데 있다고 한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느낄 때가 바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로 물들지 않게 늘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순종의 기쁨

김희진 사모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지혜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린도전서 1:27)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을 하던 중에 갑자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에 생각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읽어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 물음표를 단 채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흔들림이 많고 완전하지 않은 내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준 것이 비교가 가능할까? “하나님이 내 죄를 먼저 사하여 준 것처럼 나도 이웃의 죄를 사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순서가 맞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 것만큼 나도 용서할 수 있을까? 정말 나는 ‘용서’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게 ‘자격없음’으로 말문이 막히고 연약한 내 그림자가 커다랗게 보였습니다. 생각없이 용감하게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채워 흐르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세상의 많은 일들과 인간관계와 상관없이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대가 없이 이루신 참 사랑을 믿고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고 계심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처럼 용서와 순종하는 일이 여전히 내 의지로는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지금 이순간도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구합니다.

Peacemaker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 의지를 먼저 내려놓는 순종의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하루를 이끌어 주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힘보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매일 경험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매일 내 안에 가득 채우며 오늘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기쁨을 전하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우리 안에 즐거운 순종이 계속되게 하소서, 실패하더라도 순종의 길을 걸으며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이 계속되게 하소서, 아멘



회개와 기도

김계숙 권사/김문소 장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누가복음 10:29)

참으로 오랫동안 골프를 쳤네요. 심한 허리통증을 치료한 의사의 권고대로 2016년말에 40년간 일하던 병원문을 닫기까지 30년을 열심히, 아주 미친 사람같이 골프를 쳤어요. 매일 치기도 하고, 수요일에는 교회 친구들과 36홀 또는 45홀을 돌기도 했으니까요. 지금은 큰 방향전환을 했지요.

39년전 이 집을 지어서 이사 온 우리 집 길은 막다른 골목길로 12집이 살고 있어요. 얼마 전 이웃 로렌스 시의 가스 폭발 사고로 강제 대피 명령을 받아서 집들을 비우고 나온 이웃들이 동네 중앙인 우리 집 앞에서 만나, 어떻게 해야 하나를 의논한 게 이웃들이 처음 대면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부부는 동네 걷기를 매일 합니다. 막다른 골목길이라 조용하고 안전하여, 한바퀴 돌면 1000보가 되고, 3번 도는 3000보 걷기를 하루에 한, 두 번 합니다. 걸으면서 좋았던 기억들을 되새겨 보기도 하고, 지금 읽는 책들이나, 인터넷에서 본 ‘인간극장’ 얘기도 합니다.

지난 연말부터는 각 집 앞을 지날 때 마다 그 집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걸으니 이웃 집들이 건물들 만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이웃들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남편을 잃고 혼자 사시는 집이나, 이혼하고 이사 온 집의 아픔들이 마음속에 찌릅니다. 대속의 피를 흘리신 사랑의 주 예수님이 이웃들 가정안에 안주하도록 기도하며 걸습니다.

들고 나는 이웃들 차에 손을 흔들며 하나님의 가호를 받게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 옵니다. 교회가 있는 Brookline의 ‘B40’ 처럼, 우리도 저희가 사는 Andover의 ‘A40’를 기원하면서 말이죠.

걷기전까지 30여년간 우리 골목 Cardinal Lane을 위해 축복기도 한번 못한 죄를 자복합니다.

감사한 옛 지인들의 소식은 끊겼지만, 그들을 위한 감사기도를 잊고 있었던 죄 또한 자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임을 새삼 깨닫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2년전에 다녀온 러시아 St. Petersburg의 MIR 선교와 지난 7월에 다녀온 나바호 인디언들 선교와 11월에 다녀온 쿠바의 ‘가정사역’ 선교와 오지에서 어려운 환경 중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와 BNI 그리고 Boston지역 목회자님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더욱 힘껏 하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 말씀 따라 오늘도 우리 이웃을 축복하게 하옵소서. 또 주님의 나라가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온 세계 위에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8-9)

얼마 전 같은 성경공부팀의 집사님이 특을 보내오셨다. 동영상이었었는데 일본의 어느 초등학교 실내 운동장 같아 보였다. 멀리서 찍은 것인데 어떤 어린 학생이 뒀틀을 향해 뛰어 가고 있었다. 뒀틀은 아이의 키보다 아주 조금 낮았다. 그 아이는 계속 넘는 것에 성공하면서 그 높이까지 온 것 같았다. 멀리서 보이는 것이지만 그 높이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계속 서너 번을 시도하고는 결국 마지막 시도 후에는 울면서 뒤돌아섰다. 그때 같은 반 아이들로 보이는 아이들이 앉았던 곳에서 질서정연하게 그 아이에게로 다가와 빙 둘러선 후 그 아이를 응원하였다. 응원하는 것이 뭔가 일본스러운 그런 응원이었는데 그 응원 후 울던 아이는 다시 뒀틀을 향해 뛰기 시작하였다. 이런 동영상의 경우 대개 그 마지막은 성공이므로 당연히 넘겠지 하고 뛰어가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순간 ‘아, 저 아이는 지금 자기가 성공할 것을 믿고 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야 나처럼 이게 성공했으니까 이렇게 특으로 전해지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겠지만 그 아이는 서너 번의 실패와 자기 이마에 오는 뒀틀이 주는 좌절감은 어떻게 하고 다시 그 뒀틀을 향해 뛰어갔을까?

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면서 그것이 될 것이라고 믿어 본 적이 없다. 시도는 해 보겠지만 당연히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실패하였다.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하지 않으면 그것이 될 거라고 믿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 어떤 조치에 동료의 응원, 격려를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 것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될 거라는 것은 너무 동화적이 아닐까? 그런 감동은 너무 작위적인 것이지. 그런데 그 동영상의 그 아이의 뒷모습에서 나는 그 아이의 믿음이 믿어졌다. 권사가 될 수 있는 나이까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다. 무슨 불 같은 강력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주 잔잔하게 그 아이의 믿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진 것 같았다. 그 아이는 아주 깨끗하게 그 뒀틀을 넘었다.

그러고 보니 이렇게 잔잔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뜨겁게 그런 믿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다. 1985년 1월 12일 새벽, 나 혼자 기도하며 내가 죄인이었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고 호느꼈던 그 날. 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믿어졌다.

그 날 이후 나의 신분은 죄인에서 크리스천이 되었다. 1985년으로 부터 내 믿음의 나이가 이제 35살, 이제서야 나는 믿음의 문을 여나 보다. 아니 아버지께서는 이제야 믿음을 선물로 주시나 보다. 그 많은 시간을 지켜보기 참 답답하셨겠다. 답답하셨겠으나 나는 거짓으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할 수는 없었다. 이제 믿음의 문을 조금 열었으니 이제부터는 아버지께서 부어 주시는 용원과 격려, 성령의 돌보심에 좀 더 민감해지고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 상승은 35년 전에 했지만 지금부터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는 첫 걸음을 떼려 나 보다.

아버지, 나의 믿음이 믿어질 때 까지 잘 기다리게 해주세요. 아멘



Belief, Trust, and Faith

안성민 교우

“It is better to take refuge in the LORD, than to trust in man.”
(Psalm 118:8 ESV)

If someone asks you, “Do you believe in God?”, what are they saying? The definition of ‘believe’ is usually given as “accepting that a statement is true or something exists.” But the problem with ‘belief’ is that it the basic premise centers around the self – it’s based on what you accept to be true. It’s what you observe, perceive, and feel to be true in this world.

There’s a German word – umwelt – that is used to discuss how perception impacts one’s own reality. The idea is that the reality that you know is all shaped through perception – your world is the way you see, hear, smell, taste and feel. So, if you “believe” in something, if you “believe” that something is true or something exists, it all depends on your definition of reality and how you perceive reality. This separation means that ‘belief’ necessary centers around you.

The simplest example: close your left eye, then extend your right arm with your thumbs up. Line the thumb up with something in the room, so that it covers it. In this perception of reality, your thumb is covering this object. You can believe that your thumb is covering that object. Now close your left eye then open your right eye. That thumb shouldn’t be covering the object anymore.

Because of this, my thought is that God wants more than ‘belief’. Belief can be shaken, proven wrong, and it all depends entirely on our individual experiences. It depends on what you think is true in the world.

How about trusting in God? Trust is defined as “firm belief in the reliability, truth, ability, or strength of someone or something.” So, it’s a little more than just simple ‘belief’. It’s firm – it’s hard to shake. The problem is, because this is, again ‘belief,’ it is again self-centered. Too often are there people who say they ‘trust in God’ but act completely differently. If we ‘trusted’ God, would we have to worry? No, because by believing in God’s strength to pull us through tough situations, we open ourselves to perceiving evidence to the contrary, and having our ‘belief’ be dismissed.

In fact, in Korean, ‘believe’ and ‘trust’ are both 믿다.

So how does ‘faith’ stand above these two? If we look at the Korean, we have a hint: 신앙 = 信 (믿을 신) + 仰 (우러를 양). It basically means to trust and sincerely respect. Which means, with faith comes humility and action – “So also faith by itself, if it does not have works, is dead” (James 2:17 ESV). It doesn’t end with belief, it transcends belief.

This makes sense, I think: God is above the realm of the natural, i.e. supernatural. So it doesn’t make sense to apply the logic and the emotions of the natural world to God. Faith necessarily must transcend reality. It must be ‘realer than reality.’

So, we conclude that faith must show in one’s life. As we prepare our hearts for the death and the resurrection of Christ, which paid for all our sins and gave us eternal life, I think it will be meaningful to think about what it means to have faith in Jesus Christ.

“Heavenly God, help us to remember what it really means to have faith in you, and to use that faith as a stepping stone to fully committing our lives into your hand. Amen.”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 지셨도다.” (마태복음 8:17)

반들반들 매끈한 색종이가 손 안에서 순식간에 구겨집니다. 눈 깜짝할 사이, 참 쉽게도 구겨져 버립니다. 제 마음이 종종 그 색종이 같습니다. 잘 구겨지는 색종이…. 구겨지는 이유도 참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염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과는 거리가 먼 스스로의 모습에 좌절, 아이를 키우며 느끼는 엄마로서의 한계, 이방인으로서 부딪히는 어려움….

하루에도 수도 없이, 사소한 일에도 너무 쉽게 꾸깃 꾸깃 구겨지는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연약한 마음을 단련하겠다며, 달변가의 강의를 듣고, 유명한 심리학자의 책도 읽어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잠시 잠깐 시원한 기분이 들 뿐, 근본적인 마음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구겨진 내 마음을 뭐라고 하실지… 짐작이나 하실지… 꾸짖지는 않으실지… 그래서 성경책을 붙들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매고 내가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움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28~30).”

주님,
완전한 인간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당신께서,
제 연약한 마음을 모르실 리 없다는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충분히 무겁습니다. 뭘 더 매란 말씀이세요? 매면 더 어려워지고, 더 무거워지는 것이 이치입니다….’ 투덜거리던 제게,
세상적인 멍에에 갇혀 구겨지고 지쳐가는 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세상 멍에는 예수그리스도의 멍에를 통해서만 풀려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근심과 짐을 주 앞에 내려 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배울 때,
비로소 경험하는 진정한 자유와 쉬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처한 삶의 문제들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그 연약함을 나보다 잘 아시고,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고 가신다니,
구겨졌던 마음이 새롭게 되는 회복을 경험합니다.
오늘은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쉬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시험을 받으시더라: 주리심

이영길 목사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 1-8)

첫번째 시험은 광야에서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두번째로는 높은 곳으로 갔습니다. 아마 광야는 더 이상 아닌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세 가지 시험 중에 광야 한 복판에서 받은 시험은 첫번째 시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를 빨리 멀리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광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의 저력을 알기 때문에... 광야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1: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광야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경배를 한다면 말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있는데, 말씀과 광야는 어원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는 광야에서 말씀으로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사실 마귀는 이것을 잘 알기에 예수에게 유혹한 것입니다.

“당신이 서 있는 곳은 저주의 땅, 광야요. 나와 함께 높은 곳에 올라갑시다. 그리고 축복의 땅을 보세요. 나를 경배하면 저주의 땅을 피해 축복의 땅을 순식간에 차지할 겁니다.” 이에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더 깊은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때 마귀가 보여주었던 천하 만국보다 더 놀라운 세계가 창조됨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광야에서 제일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마라의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리 뱀을 만들어 높이 올렸을 때 그것을 보는 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엠블란스에는 구리 뱀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광야에서 생긴 일들입니다. (중략)

그렇다면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서 속히 우리가 처한 광야에서 떠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절기인가요? 우리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루 하루... 나머지는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뭉입니다. (중략)

경배한다는 것은 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이미 와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온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광야로 오셨습니다. 광야에 주님은 먼저 와 계십니다. 광야에서 우리와 더불어 천하 만국 보다 더 놀라운 세상을 만드시기 원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함께... 곧 광야에서 제2의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곧 사순절은 광야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속였던 것을 발견하고 광야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를 보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겸손한 경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2019. 3.31- 사순절 넷째 주일 설교 중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창세기 9:12~13)

구름 낀 우중충한 하늘에나, 비 갠 후 청량한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보면 누구든 기분이 좋아 질 것입니다. 예쁜 수채화 한 폭을 보는 기분이어서 일까, 언제든 무지개를 보면 저는 가는 길을 멈추고 사진 속에 담고 제 눈 속에 담아 놓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창세기를 편 어느 날, 무지개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게 하려는 아버지의 다짐이자 증표였습니다.

힘든 이민생활에서 온전히 나의 힘으로 살아남고 나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가고 있다 라는 건방진 자만에 빠져 주위를 돌아보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미국에서 군입대 전 6개월의 공백기를 누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보스턴을 다시 찾았었고, seeker도 believer도 아닌 따분한 마음에 보스톤한인교회(KCB)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갑자기 바뀌어 버린 정세에 날벼락이라도 맞은 듯 고대하고 준비했던 모든 계획이 무산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기다림 속에서 2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들과 KCB 지체들은 염려와 기도로 말없이 제 옆을 지켜 주었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나지 못하는 침묵 속에서 분노와 시기만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모가 나 있던 저는 온몸으로 부딪히고 깨지며 하는 수 없이 내려놓는 법을 배웠고, 그러던 중 기적처럼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으로 워싱턴 주에서 건강하게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많아서인지,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인지는 모르지만 그 깊은 고난들은 무지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살을 베는 가르침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서였던걸까 저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포근하고 자비로운 아버지의 이미지 보다는 거역할 수 없는 두려운 절대자 이자 심판자였습니다.

하지만 무지개의 언약을 읽고 되돌아본 고난은 사실 저에게 주신 큰 사랑과 축복이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셨던 그 시간이 아니었으면 저는 가족들, KCB 형제·자매들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조카들과의 시간에서 세상 가장 따뜻한 감동을 알았고, 누나와 자형과의 시간에서는 가족의 사랑을, KCB에서는 주님의 사랑을, 2018국내 단기 선교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1년 중 10개월동안 잦은 비가 오는 이곳 워싱턴 주에서는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던 것은 주님이 늘 저에게 사랑한다 속삭였던 것이었고, 가족들과 KCB 형제·자매들의 사랑이 어디를 가든 항상 저와 함께 한다는 포근한 다독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시 그 사랑과 보살핌에 감사드리며, 보스턴에 계시는 그리운 분들에게 안부인사 전해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에게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내딛는 모든 발걸음에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세요. 사랑하는 이들이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게끔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친밀함

김정연 집사

“여호와와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여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14)

나는 내 모교 고등학교를 참 좋아하고 늘 그리워한다. 어느 정도로 좋아하느냐 하면 아직까지 교가를 외우고 있고 우스개 소리지만 진담도 분명 섞여서 우리 딸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한국에 가서 모교에 입학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이 나중에 여자친구를 우리 모교 출신을 사귀었으면 좋겠다고 신랑에게 말하곤 한다. 내 고등학교 친구들, 후배들은 무조건 다 아주 이쁘고 무조건 다 진짜 착하다고 생각한다. 입시 스트레스 많았을 고3이라도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때로 돌아가고 싶다.

왜 이렇게 나에게 고등학교가 좋고 특별한 지 이유를 생각해보면 여러가지들이 떠오른다. 사계절 아름답고 예뻐던 교정은 물론이고 사랑 많으시고 따뜻하셨던 좋은 선생님들, 입학식 때 교감 선생님께서 낭독해 주셨던 기미독립선언문, 미션 스쿨이기에 매주 드렸던 학급 예배, 전교생 예배, 개교기념일 전날 밤 노천 극장에서 드렸던 촛불예배, 담임 선생님 생신 때나 스승의 날 같은 특별한 때에 모두가 같이 부르던 축복송, 우리가 졸업할 때 전교생이 다 같이 화음 넣어 합창하였던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 지금 후배들은 졸업식 때 다같이 할렐루야를 합창한다고 한다-, 수능 보던 날 후배들이 교사장 앞에서 우리를 응원한다고 불러주었던 찬양들, 전교생이 행사 때마다 3절까지 화음 넣어 제창하던 교가. 교가는 또 얼마나 성경적이고 은혜로운 지, 특히 3절 -**삼위신 우리님 스승이 되신 여기서 길린 자 새 생명 얻도다. 튼튼한 몸으로 지덕을 겸하여 약한 이 힘 되고 어둠에 빛 되자**- 은 정말 기가 막히다. 이 ‘약한 이 힘 되고 어둠에 빛 되자’는 내 인생의 모토가 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내가 고등학교에 왜 이렇게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이유들을 계속 열거하자면 계속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수 많은 이유들 중에 최우선인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던 친구들과의 친밀함일 것이다.

우리 집 앞에 등교 스쿨버스 도착 시간은 아침 6시 40분이었는데 그 시간부터 다시 집 앞에 학교 스쿨버스가 도착했던 시간이었던 밤 10시 40분까지 우리는 하루에 대략 16시간을 3년간 함께 보냈다. 스쿨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매일 아침 전속력으로 뛰어 잠을 깨고 스쿨버스에 올라타고 나면 가끔 잠을 자기도 했지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스쿨버스에 내려서 교실까지 걸어가는 동안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갈 필요가 없어도 쉬는 시간 화장실과 매점에 친구 누구 한 명만 가더라도 같이 따라 갔고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었고 산책을 했으며 저녁 시간이 되면 또 같이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며 시간을 함께 보냈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수업 종이 치고 수업시간이 시작되어 대화를 못하게 되면 친구들과 쪽지를 썼고 야간 자율(야자) 학습시간이 되면 지금 같이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 친구들과 (심지어 바로 옆에 앉아있는 짝공과도) 편지를 써서 주고받았다. 야자가 끝나고 스쿨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동안까지도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

집에 오면 우리는 또 전화통화로 대화를 이어갔다. 그 당시 방전화번호를 따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여럿 있었고 나도 한내 방에 전화번호를 따로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방번호를 한밤중에 집에 다른 사람들 깨우지 않고 우리끼리 비밀 접선할 수 있는 수단인 양 여기고 새벽까지 서로의 비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을 때 아직도 할 말이 남아있는 듯 “내일 만나서 또 이야기해” 라며 전화를 끊었다. 주말에도 학원이나 과외들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음으로 각자의 집에서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하루를 거의 주 7일 모두를 공유했던 우리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많은 날 많았을까.

미션 스쿨이라도 다 기독교인들은 아니었지만 늘 함께 하고 삶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들어주고 말하고 하니 서로가 뭐가 힘든지, 어떤 상황인지, 기도제목을 따로 나누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었고 서로의 마음들을 살피고 성경 구절, 좋은 글귀, 시를 담은 쪽지와 편지들로 서로를 보듬어 주었다. 그 때는. 졸업을 하고 대학이 나뉘고 직장이 나뉘고 각기 가정을 가지게 되면서 다른 공간 다른 시간을 보내며 절대적으로 같이 있는 시간이 확연히 줄다 보니 서로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와 믿음은 여전하고 단독방에서 때때로 대화는 이어가지만 학창시절처럼의 그런 매일 매일의 끊이지 않던 대화와 삶을 공유함을 통한 친밀함이 사라진 것이 못내 아쉽다.

참 좋았던 친구들과의 친밀했던 시간들을 회상해보면서 새삼스레 그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참 좋은 내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과는 얼마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친구 예수님을 생각하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동행하시던 장면이 떠오른다. 그 제자 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신지 몰랐지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친구처럼 도란 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짧지 않았을 그 제자들과 예수님과과의 시간이 참 부럽다. 친구들과 저녁시간에 휴식의 숲, 노천 극장을 산책하거나 야자를 빼먹고 교보문고까지 걸어가던 시간의 추억이 오버랩 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해질 무렵 저녁 냄새를 맡으며 팔짱 끼고 이야기를 나누며 산책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을 해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구들처럼 그런 친밀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하루 중 얼마만큼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예수님과 대화하며 보내고 있는지 돌아보면 반성하게 된다. 친구들과 삶을 나누면 나눌수록 대화거리가 많아지듯이 기도와 말씀 생활을 잘 하고 있으면 기도 제목들이 계속 떠오르고 기도할 것들이 더 많아지고 기도가 더 잘 되는 것을 경험한다. 십자가를 통해 언약을 완성시키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우리 구주와 친구 되신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다. 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과도 속 깊은 기도제목들을 나누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서 친밀해지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하루의 대부분을 공유하던 학창시절 친구들과과는 잠 잘 때는 따로였지만 친구 되신 예수님은 내 하루의 모든 일정, 심지어 잠을 자는 밤에도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 일인지 모른다. 한 찬양 가사처럼 말이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 길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In the walk of faith

Heather Lee (이하은 YG)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Psalm 23:1)

In John Piaget's theory of cognitive development, he stated that children under the age of two do not understand object permanence. Object permanence is the awareness that something still exists after we stop perceiving it. Babies coo and laugh at peek-a-boo because to them, peek-a-boo is a game where a face is winking in and out of existence. They cannot grasp the fact that when we hide our faces behind our hands, our faces still exist.

My faith has often lacked object permanence when it comes to God. I grew up in a family of faith and have known God for years. Prayer and the scripture has been my daily food since I could speak. This faith, however, comes most easily in the church. In the spiritual highs of a retreat or a worship night, believing in Him is easy. When I am caught in the right environment and the right mood, His love seems so sure and I can't imagine myself anywhere but being in His presence, worshipping him forever.

However, that same faith and joy does not come so easily when I am at home and school. In darker moments, it's easier to automatically assume God has abandoned me. Where is the Lord of Heaven when I am overwhelmed with stress? Where is my Protector and Healer when I am in pain from my first college rejection? Where has my Savior gone when children are being held in concentration camps, when the political climate of my country is going up in flames? Flimsy faith crumbles in the sight of calamity. Being disheartened when hardships hit me is all too easy because faith in Him is not easy.

But as I get older, God is showing me more and more that He does not wink out of existence when disaster covers his face. When I was anxious about my faith in middle school, He gave me Romans 8:224 and showed me that He saw my pain. As I prepared to go on the Navajo mission trip, He filled my heart with peace and joy as I meditated in my bedroom. Today, I am coming to realize that putting daily time to really sit and soak in His word gives space for Him to work in my life, even if I am not at a retreat or worship night. And as I realized this, I have come to pray that in all moments of life, I will have the assurance that the pains of this world pales in comparison to the power and the glory of His love and grace. I want to have faith that reflects object permanence. Back when I was five, six, and seven, my grandmother read me Psalm 23 as I went to sleep. The prayer that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is my daily anthem. He is my God, therefore, I shall not want. Although darkness comes in life, God can, and will, provide.

Lord, thank you for your everlasting presence and grace. Open up our eyes to see you even in the midst of pain. I pray that our lives will be a living sacrifice to you as we walk this path of faith. Amen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정광근 집사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창세기 1:2)

수 많은 첨단 장비를 통해 지금까지 관찰되는 결과들은 천문학자들과 천체 물리학자 다수가 믿고 주장하는 우주 기원의 설명, 즉 빅뱅 이론을 더욱 강력하게 증명해 가는 듯합니다. 이 빅뱅 이론은 140억 년 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우주의 한 특이점,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모든 에너지들이 구별없이 하나로 모여 있던 그 한 점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고 그 폭발이 만들어 내는 팽창이 지금도 우주를 확장시켜가고 있으며 그 우주는 점점 식어가며 넓어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난 그 한 점에 어떻게 이 우주를 만들어 낼 만큼 상상조차 하기 힘든 힘들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모여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만들어지기 위해 그 전 단계가 있어야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만드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손끝에서 그 폭발이 일어났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빅뱅 이후 우주의 시간과 공간은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하루, 한달, 그리고 일년이라는 단위가 반복되는 너무도 신기한 소망의 시간 체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의지가 약하고 잘 미루는 게으름 때문에 학창시절 방학 숙제도 늘 방학 끝나기 하루 전날 몰아서 대충해서 제출하곤 했던 저는 이 하루, 한달 그리고 일년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이 우주 만물들은 처음 출발했던 그곳으로부터 한 쪽 방향으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데 오직 우리에게만 늘 새롭게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달과 지구 그리고 태양의 상호 운동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늘 일년을 돌아보고 한 달을 돌아보고 또 하루를 반성하며 더 나은 다음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2000년전 우리 하나님은 이 소망의 시스템 속에서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방향으로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고 있던 우리 온 인류에게 완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reset의 기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습니다. 내가 날 바라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이 소망 없는 인간의 삶에 무슨 짓을 해도 도달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죽음과 절망의 끝을 향해 달려가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바로 볼 수 있게 다시 시계를 맞추신 것이죠. 한 개인에게 그냥 하루, 한달 일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2020년 전 주신 겁니다. 전 그게 믿어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12달 그리고 365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탄생한 해를 시작으로 인류의 시간은 다시 시작됐고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준으로 AD(Anno Domini: 주의 해())2020년째 해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는 이 다시 시작된 인류를 위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올해도 사순절이 왔습니다. 1987번째 사순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우리에게로 오시는 그 날 2020년전 새로 시작된 이 시간은 멈출 것이며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시간이 다시 영원을 향해 시작될 것입니다. 그 날을 꿈꾸고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번 사순절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완벽한 새로운 기회를 주신 주님을 가슴으로 묵상합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고통을 조금은 아는 척, 느끼는 척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끝없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들에게 2020년 전 주님의 아들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2020년 새해에 나의 성찰

홍영희 권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한 해가 가고 또 새로운 해를 맞으며 하나님 앞에 선 나의 참 모습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는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있음을 알고 있는 나는, 나와 연결되어 일어나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또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결정을 하기 위하여, 그것들의 과정을 선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지?

“예수님은 나의 주” 라고 입으로 고백하며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인생에 비 오는 날 (힘들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삶속에서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주님께 매달리고 노력하고 있는지? 라는 질문을 하며 너무도 부족한 자신에 대하여 숙연해집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빛과 힘을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말씀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는 한 번 못 박힘으로 사함을 받았으나, 매일 일어나는 죄와의 싸움에서 생기는 것들은 매일 못 박으며 살아가야 함을 의미한다고 배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또한 고 한경직 목사님께 후배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한결 같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대답하셨다고 하는 말도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며 답을 주십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때, 나 자신의 회복은 물론 가족과 이웃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것이며,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 “예수를 믿으세요.”라는 말의 참 의미를 깨닫고 알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한 해를 여는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 주인을 만난 사람답게 이전 것은 버리고 새것을 좇으며, 은혜의 풍요가 앞으로 다가
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 하시고 ...

주미옥 집사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30)

부활절 전까지 여섯 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여 주시려고 나 대신 받으신 고난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노아 홍수 때 밤낮 40일간 비가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으며,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40이란 숫자는 고난과 시련 그리고 인내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부주의로 불에 데이거나 모서리에 부딪치거나 넘어져서 상처가 그리 크지 않아도 아픔을 호소하는데 주님께선 죄도 없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관한 설교를 듣거나, 찬양을 하거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성만찬식을 할 때 가슴이 너무 아파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멸시, 천대, 고통을 받으셨지만 결국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음으로 인해 무한 기뻐하셨을 주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 또한 세상에서 허락하신 사명 감당할 때 참기 힘든 고난과 시련을 인내로 감당해야 할 상황이 있을지라도 후에 있을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주님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쫓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또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참여하여 회개와 기도 절제된 생활과 경건의 시간을 통해 참되고 진정한 영의 준비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사신 부활의 예수님을 축하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꽃대를 향하여 달리는 선수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 허락하신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시험을 받으시더라: 말기심

이영길 목사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라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누가복음 4: 9-13)

자,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사실 두 번의 시험을 보면 두 번 다 주님은 말씀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마귀가 꼼짝 못했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지혜로운 마귀가 이를 모를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선수칩니다. 말씀으로 먼저 선수를 치면 주님은 꼼짝 못할 줄 알았습니다. 시편 91편이 떠 오른 것입니다. 이에 지혜로운 마귀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아마도 이 당시 제일 높은 건물은 성전이었을 줄 압니다. 사실 해룻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성전을 멋지게 지었다는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뛰어내림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시험하는 마귀에게 예수님은 또 다시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희한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말씀 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겼습니다. 말씀 대 말씀이면 비겨야 하는데 three strike이 된 것입니다. 마귀는 얼마 동안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왜 말씀 대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씀이 이겼을까요? 예수님이 사용하셨기에…?

제가 영락교회 대학부 친구들과 나누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늘 묵상한 글을 올리는데 하루는 다음과 같은 글이 올랐습니다.

“말씀을 이용하면 마음이 더러워지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말씀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고 글을 올린 것입니다.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를 돕게 하시려고 약 1주일 전에 친구 목사를 통해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진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다. 마귀는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이에 마귀는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사실 마귀는 말씀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열심히 말씀을 연구했던 것입니다. 입에서 술술 나올 정도로… 마귀는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을 그려 봅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획을 세웁니다. 사람들 손에서 곧 삶에서 말씀과 거리를 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계속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배운다면 숨겨 놓은 두 번째 계획이 있습니다. 배운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에 자기가 먼저 이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도 자기처럼 이용하는 자가 되게 하길 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예수가 마귀의 말을 듣고 뛰어내렸다면 예수도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뛰어내리셨더라면 천사가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뛰어내린 것이니 말입니다. 곧 마귀는 말씀을 이용해서 청년 예수를 시험했고 예수도 같이 말씀을 이용한 자가 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계획이 발각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이용하는 마귀에게 말씀을 순종함으로 마귀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만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은 절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요리조리 피합니다. 예수는 끝내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실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에 어떻게 되었나요? 13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잠시 떠나서 재정비를 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마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끝없이 재정비를 하지 않을까요? 아니 마귀는 주님에게는 저서 물러 갔지만 자기의 나쁜 습성을 버릴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주님께 공격을 못하겠으니 다음으로는 사람들을 공략하지 않을까요? 자기처럼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되게 하도록... 그래서 십자가를 안 지는 자들이 되도록... 사실 말씀을 아예 모르는 자 보다 말씀을 알고 이용하는 자들을 당연히 마귀가 더 좋아합니다.

<2019. 4.7- 사순절 다섯째 주일 설교 중에서>



사순절 묵상집 2019와 함께 ...

서재영 집사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서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15:8)

나의 첫 사순절 묵상집 원고를 위해 몇 달, 아니 몇 년 만에 펜을 잡는다. 넉넉하지 못한 유학생 형편에 유일한 laptop은 공부하며 일하는 남편의 몫이고, 집에서 육아하는 나에게 자리만 차지하는 desktop은 거추장스럽고 세련된 laptop은 사치다. 학교에서 액티비티 후 가져오는 딸아이의 프린트 용지를 이면지로 뒤집고 성경과 작년 2019년 묵상집을 꺼내며 ‘그래, 묵상집 원고 시작의 가장 기본은 이 두가지 아니겠어.’ 하며 드물게 일찍 잠들어준 둘째를 기특하게 뉘이고 과제 하던 학생 때의 기분을 내어본다.

작년 묵상집을 샘플 삼아 스르르 넘기며 눈에 들어오는 묵상글 부터 가볍게 읽어 나간다. 너무 빨리 읽었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 읽고 싶은 글들을 처음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그리고 한 줄의 기도도 놓치지 않는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때 내 머리가 울린다. 모든 글과 기도들이 살아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짐을 생각하며 우리가, 내가 왜 회개하며 기도해야하는지를 겸손하게 또는 날카롭게 각자의 일상에서 숨을 쉬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냥 뱉어버리는 말이 아닌 글로 쓰고 다듬어진 소중한 각자 삶 속의 진주같은 깨달음, 기도 들이다.

이제는 내 손과 눈이 바빠진다.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에 또다시 묵상집 맨 앞으로 돌아간다. 이번에는 묵상집 표지부터 뚫어져라 살살이 뒤진다. 표지의 명암이며 쪽수가 없는 첫 페이지의 붓으로 그린 듯한 십자가부터 권두언 그리고 재의 수요일 기도... 페이지 43으로 넘어가니 이제는 내 가슴이 울린다. 앞서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시련으로 인한 나의 회개와 기도였다면 이번에는 사순절의 절제, 그리고 인내다. 지금껏 나 스스로 채찍질하면서도 진정으로 절제하며 인내하지 못했을까...

마음속에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그렇다고 그것들이 한번의 결심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 이미 수십년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훈련이다. 연습이라는 단어 선택이 더 유화롭게 생각되지만 적어도 나에게게는 연습이라는 자유로운 선택이 아닌 항시도 긴장을 놓지 않으려는 절박한 훈련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래야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묵상의 시작점을 찾을 수 있을 듯하다.

나의 2020년 사순절 묵상의 시작은 2월 26일 보다 조금 이른 1월 24일부터 2019년 묵상집과 함께 나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과 절제, 그리고 회개와 기도, 경건한 생활을 통해 수난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을 기억하며 묵상으로 참된 자아, 영적인 준비를 갖춰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싶다.

하나님과 저의 관계 안에 진정으로 회개와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3:15)

지극히 높은 곳의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자들을 위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인간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토록 위대하고 존귀하신 그 분이 한낱 먼지 보다 작고 미약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가 너무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과연 나에게 믿음은 무엇인가? 나는 왜 교회에 가고 있는가? 교회가 내 삶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한 하나의 장식에 불과한 건 아닐까. 남들 다 가니까, 적당히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찾는 건 아닐까, 반성을 해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회라는 공간에 발 한 쪽만 걸쳐 두고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차가워지려면 아주 차가워져서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든가, 아니면 정말 뜨거워져서 활활 불타오르든가.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모습으로, 교회를 그저 내 인간적 혹은 신앙적 성숙도를 나타내주는 장식품으로 만들어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요한계시록 3:17). 이 모습이 바로 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의 삶에서는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껏 누리며 살기에, 정작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한 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내 삶의 여러 우선 순위들 중에서 하나님은 과연 몇 순위인지. 세상과 하나님을 적당히 몰타기하면서 부족한 것 없이 살고 있다 생각했으나 실상은 처참하게 눈이 멀어 아무 것도 보지 못하는 자, 그게 바로 내가 아닐까 회개 합니다.

고난의 길을 가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주님의 삶이 나에게서 과연 어떤 의미일까? 내 삶에서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가? 겉으로는, 세상 착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이웃을 가깝게 여기고 질투하고 시기하며 험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겉으로는,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에 시선을 둘 게 아니라 영원한 주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비싼 집, 좋은 차, 더 높은 연봉에만 관심이 계속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 겉으로는, 하나님 자녀로 믿음 속에 자라는 아이들을 키워달라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우리 아이 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직업 갖게 해주세요 저 정도 되는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삶만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삶은 과연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는가, 그렇게 되돌아 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진정으로 뜨겁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편지

노윤경 집사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12)

사랑하는 예수님께,

예수님, 2020년 올 해도 저희들은 어김없이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달처럼 일 년에 한 번 왔다가 가는 시간이지만 예수님을 만났고 또 구원을 받은 저희들에게는 참으로 귀하고 또 마음 아픈 시간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소,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오직 선으로 당신의 할 일을 하신 예수님, 진정한 왕이시지만 섬김을 보여주신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조금씩 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저희들의 믿음이 나무처럼 자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자주 그 나무 한 구석에서는 가지가 썩어 가기도 합니다.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나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빛과 생명이 아니라 어둠과 죽음의 생각으로 가지가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암울하고 절망적인 때에도 예수님이 저희들과 함께하시니 다 괜찮습니다.

병든 저희를, 탕자가 된 저희를 예수님이 고쳐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니 저희들은 또 주어진 시간 안에서 예수님 손 꼭 잡고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를 쓰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작은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Repenting and Coming Back to God

Christopher Rhee (이윤찬 YG)



“Even now,” declares the Lord, “return to me with all your heart, with fasting and weeping and mourning.” (Joel 2:12)

For Lent this year, I will give up any form of social media for 40 days. Other than calling/messaging parents, I think that all the time I have been on social media can be replaced with time with God.

According to statistics, teenagers spend 6 to 9 hours of social media every day. If all that time is now devoted to God, people can connect and communicate with him so much better. Also, without social media, people's physical and mental health will get better and people will be able to live a more wholeful life.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1 John 1:9). This verse in the bible means that if we admit that we sinned, he is fair and he will remove the sin from us. Too much social media is like a sin. If people took a break from social media, God will be faithful and remove this sin from us.

With this act, I will show that I am grateful that the Lord is continuously saving us from the hands of sin. I will also do my best to not stray towards sin. This is the reason why I would give up any form of social media for Lent.

The Lord Says, “Now, come back to me with all your heart. Go without food, and cry and be sad.” Tearing your clothes is not enough to show you are sad. Let your heart be broken. Come back to the Lord your God. He is kind and shows mercy. He doesn't become angry quickly. He has great love. He would rather forgive than punish.” I Will come back to the Lord with all my heart and the Lord will erase the sin from me.

Dear God, I pray that the Lord will help me keep this promise of not going on social media for 40 days. I also pray that everyone else can come back to the Lord with all their heart. Amen



거저주는 사랑

원영옥 권사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8)

미국을 들랑날랑거리며 산 시간들이 어언 15년을 훌쩍 넘겼는데도 여전히 난 미국에 대해 아는 게 없다. 그래서일까? 미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다. 그것은 왠지 모를 미국인들의 여유롭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삶(?). 아마도 헐리웃 영화(물론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혹은 미국에서 생산된 우월주의적 문화, 미디어 매체에 기인하여 부지불식 간에 세뇌당했을 지도 모를 일이다. 가끔 친구들과 과의 농담에서 “미국에 잘 사는(?) 친구가 생긴다면 믿음 안에서 예배와 기도로 세워진 그들의 실제적 삶을 들여다 보고싶다. 과연 뭐가 다를까?” 늘 돌아오는 우리의 결론은 “사람 사는 거 다 똑 같지. 뭐 별 거 있겠어?”

그런데, 마침 기회가 왔다. 미국내 집을 3채나 가지고서 계절에 따라 집을 바꿔 가며 retire 삶을 즐기는 부부(부인은 한국분)의 초대를 받았다. 덕분에 뉴햄프셔의 긴긴 겨울(30F)을 플로리다의 겨울(75F)로 일주일이나 즐기며 잠시나마 미국인의 삶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떠나는 날, 우리는 공짜로 제공된 숙식의 감사를 약소한 현금으로 마음을 전했다. 물론 면 전에서가 아닌, 떠난 후에 전화로… 그런데 그 것이 그 분의 호의에 대한 감사가 아님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오히려 섭섭함과 안타까움으로 그 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렸다는 사실을… 그 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인데… 사랑은 거저 주는 것이지, 대가를 바라거나 돈으로 쳐서 주는 건 더더욱 아니라고… 당신이 가진 것이 있어 나눌 때는 그냥 “Thank you” 로 받으면 “That’s All” 에궁, 이걸 뭐지? 난 2~3개를 주는 동안 1개라도 못 받으면 엄청 섭섭해지고 답엔 안봐? 했던 것 같다.

그 가정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친구 따라 교회를 간 적이 있고 중고등 학교를 크리스찬 배경의 스쿨로 다녔던 탓일까? “Jesus”, “Hallelujah”, “Amen” 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더구나 그들의 생활 속엔 거저 주는 사랑이 배여 있다. 그 사랑이 한국에 복음도 심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오늘도 그 사랑의 열매들로 함께 하고 계시지 않을까? 문득 생각해 본다. 수백년을 거쳐 그들은 전세계에 거저 주는 사랑을 뿌렸다. 덕분에 복음은 편만히 퍼져 나갔고 미국을 찾아온 우리 또한 그 사랑에 감사했고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뉴멕시코로, 과테말라로 찾아 들었다

오늘은 늘 읽던 마태복음 5:45~48, “이같이 한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새롭다. 늘 부르던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다 주는 것, 베푸는 것” 이라는 찬양이 새롭다. 그랬다. 그 분은 우리가 “감사해요”라는 한 마디에 당신의 아들까지도 거저 주는 사랑을 하는 “우리 바보”시다.

주님!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보게 하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거저 주는 사랑이 결코 쉽지 않기에 오늘도 연습하면서 당신의 그 사랑을 닮아 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멘

To Serve

익명



“Now that I, your Lord and Teacher, have washed your feet, you also should wash one another’s feet. I have set you an example that you should do as I have done for you.” (John 13:14~15)

Unworthy
To even untie the straps on his feet
Yet how is it
that my own
Are being washed by my Lord?

I look down to see
My feet in his hands
As he kneels on the ground
To cleanse me again.

Never, O Lord!
Just like Peter exclaimed
Such are my words
‘Til he looks at my face
And I slowly grow silent
My eyes to the floor
For I know in my heart
I had been here before.

Day by day washed
Yet never a glance
Spared for the washer
Whose firm, gentle hands

Had over and over
Cleansed and relieved-
Only now does it dawn
That he’d done it for me.

I hurriedly rise
But again, I am lost
In the dust of the road
I am tumbled and tossed-

Yet this time I stop
For a whisper I hear
The voice of my Lord
That’s He’s brought to my ears
And looking around
At the feet in the sand
I kneel to the ground
With a basin in hand

To become a servant
As I have been served
Remembering how
I’ve been washed
By my Lord.

Dear Lord, let me always remember your grace, and give me the heart to serve as you have served. In the name Jesus Christ of Nazareth, Amen.



섬긴다는 것

박신영 장로

3/29
(사순절 다섯째주일)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요한복음 13:4-5)

지난 해 사순절 기간 중에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다. 십자가를 앞두고 유월절 만찬 중에 예수께서 겹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후,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섬기라고 하셨다. 몸은 이미 목욕으로 깨끗하지만, 더러워진 부분이 있다고 하셨다. 바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그 부족함을 서로 섬김을 통해 메꾸어 주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형제의 부족함을 호통하며 뜯어고치는 다스림이 아니라, 덮어주고 씻어주는 섬김을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계속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너는 누구의 발을 씻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섬긴다는 것은 누추함을 마다치 않는 것이니, 재미있고, 폼나고, 편한 것을 추구하는 시대의 정신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대접받기를 바라는 데, 섬긴다는 것은 때로 업신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이용당할 수도 있으니, 이 또한 멍청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시대에 뒤떨어져도 한참 뒤떨어진 것처럼, 아니 세상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발견되는, 섬기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저 감사할 뿐이다.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외롭지 않게 보여 기쁘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는 누군가 동역자가 있어 든든하다. 우리를 따로 불러내어 교회에 속하게 하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게 된다.

섬긴다는 것은 겹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는 것이라는 단순한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다시 세워본다.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 기쁨으로 행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지나 교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8)

그 분을 조금씩 알아 가면서 많은 질문들이 반복되었고, 그 중에서도 참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죄인들 그냥 다 버리고 가시면 되지, 왜 살리셔야만 했는지, 지극히 높고 존귀한 그곳에서 도대체 이 사악하고 황폐한 세상으로 왜 내려오신건지, 그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죄투성이인 우리를 위해서 그 분이 뭐가 아쉬워서,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길래…

예수님의 삶을 읽어 갈 때마다, 죽음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돌진하고 계시는 그 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통받기를 작정하고 불길 속으로 달려드는 그 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낮은 세상에 오셨다는 것, 이미 그것만으로도 그건 어마어마한 고통이 아니었을까요? 그 고통의 절정은 십자가인 듯 합니다. 찢기우고 피가 튀고, 뼈가 으스러지고… 너무나도 처참하고 처연하기만 그 모습을 묵묵히 읽어 내려가면서, 짐작조차 하기 힘든 십자가의 고통에 숨이 막힐 것만 같았습니다.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내가 꼭 그 길을 따라 가야만 하는 걸까? 과연 나는 모든 것 다 버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을까? 넓고 편한 길 다 놔두고 나는 과연 저 좁고 힘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몇 걸음 뒤에 물러서라도 따라갈 수 있을 거라는 미약한 자신감마저도 아예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는 작고, 나약하고, 부끄럽고,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은 늘 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을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 더 강해져야 한다고. 고난과 시련에 함몰되지 말고 이겨내야 한다고. 그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채찍질하면서 단련시켜갑니다. 하지만 나의 주님은 정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되돌아봅니다. 어쩌면 주님은 다 보고 계셨고, 이미 다 알고 계셨겠지요. 그리고 그 나의 작은 고통마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 속에 함께 들어 오셨습니다. 고통에 함께 하신 주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은 나를 그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 놀라운 사랑과 고난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길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작은 불꽃 하나가

이정민 장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8)

요즘은 강의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의대생/Resident/ Fellow 상대로 특강을하는 것은 습관이 되어있어 특별히 힘들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글쓰기에는 더군다나 한글로 글을 쓴다는 것에는, 어려서부터 외국에서 생활해 온 나로서는 우리나라 말 표현에 어려움을 느껴왔기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한글 원고 집필을 부탁받으면 힘들어 사양을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학생들 강의하라고 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사양하지는 않았을텐데...

홍보 위원장께서 “글은 재능보다는 마음으로 쓰는 것이 아니겠어요?” 라는 말씀에 용기를 내어 사순절 묵상집에 미천하나마 받은 은혜가 커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019년 단기 선교를 위한 준비 모임을 몇 차례 가지면서 처음에는 여느 해보다 “약한”선교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부득불 빠지는는 바람에)이 구성되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상황에 맞게 역사 해 오신 것을 여지껏의 경험을 통해 보여주셨기에 이번에도 그리하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연단이 필요하셨는지 더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만드셨습니다.

단기 선교를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도 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이 곡을 주셨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이때부터 우리 단기 선교 사역에 대한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불꽃으로 큰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믿음과 함께...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기대 이상으로 과테말라의 치섹 (Chisec, Guatemala) 현지인들과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되고 역사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셨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는 부족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 하셨기에 “여호와 이레” 와 “여호와 낫시” 가 함께 멋지게 조화를 이루었던 2019년의 해외 단기 선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축복/은혜/사랑/복음을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전세계가 하루빨리 복음화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 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8-9)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측치 않은 축복을 받은 인물들의 예를 볼 수 있다. 얼핏 뇌리에 스쳐가는 인물들이 아브라함과 노아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성의 영역을 넘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기에 복의 근원이 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반면, 아담의 배필로 창조된 이브나 최초의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대표적 인물들로 나타난다. 사탄의 꾀임에 속아서 먹어서는 안되는 선악과를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인류를 죄인으로 전락시키는 원인이 된 첫 커플이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 보다 앞서서 전쟁의 유물을 다 소탕 못하고 적군의 왕까지 데리고 온 사울 왕은 자신 뿐 만 아니라 그의 가문에 비극을 초래했음을 보여준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상 15:22) 말씀을 실감나게 하는 것이었다.

아브라함의 경우, 이삿짐을 꾸려 정처없는 나그네 길을 떠난 것부터 순종으로 시작되었고, 오랜 세월을 기다리다 말년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결단하고 모리아산을 향해 떠나서, 아들에게 칼을 들기까지의 장면들을 상상해본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분부를 하셨더라면? 애걸복걸 하면서 그 잔을 치워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런지. 의과대학에서 목사가 되겠다는 내 아들을 핍박했던 나 자신의 믿음 없음을 또 한 번 회개하면서, 그 아들에게서 나는 순종의 축복을 배운 엄마였으니까.

노아의 경우,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오랜 날들을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며 사람들의 조롱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방주를 완성시켰다. 악하고 타락한 세대를 심판하고 의인을 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노아의 순종으로 New Chapter가 열리게 되었다.

신약시대의 가장 대표적 순종의 인물은 인자 (Son of Man) 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라 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과 육체적인 고통을 그려볼 때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순종의 극치라고 본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어야 하는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숨을 거두시는 그 모습에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구가 온 땅 위에 울려 퍼지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기에 아들을 당장 살리실 수 없겠는가 마는 죄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하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었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의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또한 세상 끝 날에 심판의 주님으로 공중재림 하실 권세까지도 주시지 아니 하셨나.

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아닐까 한다.

사랑의 하나님, 순종을 매일매일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사랑받으며 살아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마승은 교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 31-33)

서문 대신인 시 하나 속에서, 잎새에 이는 바람에 괴로워하고 별에 스치우는 바람을 느끼는 것은 하늘을 우려르기 때문입니다. 또, 바람이 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주어진 길을 걸어가신, 그 시간을 기억하는 것은 또 하나의, 나에게 길이 주어졌음을,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음을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 옳은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은 선물로 주시는지 모르나 올바름에 대한 나의 갈구는 나만의 것은 아닌 듯도 합니다.

나는 내가 나임에 대하여 무한한 존재를 느끼고 온 만물의 고요함에, 기다림에 더 큰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올바름에 의미를 두게 됩니다.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어쩌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것은 나의 길이 아닌듯합니다. 그 길은 오히려 넓고 육체적 즐거움과 눈에 보이는 힘과 쉬이 나의 행복을 쫓는 길인 듯합니다. 게으르다면 미워함 속에 성실하다면 바쁨 속에서 사실 관심은 없으면서도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양 무섭게 살아만 갈 듯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달콤하고 때로는 아름답지만 인간에게는 때로 깨끗할 필요가 없어서 무섭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오직 아름답고, 연약하지만 강하기 때문에 언제나 빛이 납니다. 누구에게나 다시 살 만한 따뜻한 마음을 천천히, 끝끝내 전해갑니다. 우리는 약한 위치에 있지만 성실하고자 합니다. 낮은 위치에 있지만 부지런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지혜를 갖추기 위해 큰 능력 받으며 노력을 즐기하고자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좋은 것은 그 자체로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는 기적입니다. 나에게서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주님의 더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나를 항상 안아주시심입니다.

내가 만약 그를 인정한다면 실로 뻗속까지 부끄럽게 될 줄 고백합니다. 도저히, 내가 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세상을 보면 심지어 중요치도 않은 듯하고 세상을 살면 내가 도저히 견디어 낼 수 없을 유혹 같은데, 내가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고자 한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구해다 주시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 보이는 나의 더러움에 결코 내가 가져선 안 될 듯한 아름다움을 ‘네가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에게 준다’ 하시니 나를 너무 사랑하심입니다.

부끄럽지만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기에 부끄러워함 속에 아름다움도 허락하심은 자비하심입니다. 모두가 갈구하는 유한한 필요마저 무한한 욕심을, 거것을 걸어내고 만족하고, 더하심에 행복하게 하시니 나의 입에서 노래가 나오지 않을 순 없는 순간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오롯이 넘치게 사랑받는 신부의 마음처럼, 숨막히게 가슴 뛰고 설레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롯이 해야 할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천국이 우리의 것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감 속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구해가고 있다면 그 삶이 잘 살았다 일컬어질 것을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고된 많은 삶에, 나의 두렵고 무서워 떨리는 삶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따뜻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잡고는 놓으시질 않습니다. 나는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운 말이지만 아름다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무려 내가 감히 이런 생각을 하게까지,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자꾸 말하시니 나는 능력도 지혜도 마음도 부족하여 구할 수 없는 그 나라와 의를 그래도 자꾸만 구하려 하고 싶습니다. 자꾸 실패하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는 내가, 서로 미워하는 반딧길로 가는 내가 또 방향을 바꾸어야 하나 발을 구릅니다. 또 예수님이 나를 업고 가시는 데 나는 또, 그 등에 가만히 업혀있지도 못하고 자꾸만 박차고 뛰어나가 나를 다시 쫓아오시게까지 하고 삽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내 이 삶이 괜찮다고만 하십니다. 나는 때로 못되게까지 굴어도 그래도 내가 좋다고만 하십니다. 나는 씬없이 이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가끔만 이 사랑을 기억하며 삽니다.

부끄럽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너무 따뜻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나의 더러움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자꾸만 나쁘게 대충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실제로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나의 삶을 비추시니 나는 자꾸만 눈을 감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나는 이 순간만이라도 가끔이라도 기도를 합니다. 항상 함께해 달라고 끝까지 사랑해달라고 절대 나를 떠나지는 말라고 잘못했다고 그렇지만 내 힘으로는 못하겠다고 미안하다고 나랑 꼭 같이 해 달라고 내 옆에 있어달라고 마치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사람의 손을 잡듯이 가끔 눈물 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끝내는 주님이 또 나를 데리러, 챙기러 쫓아오실 것 같아 내가 내 못됨을 또 자유롭게 할 것 같아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사랑만 받아서 서로 사랑함이 안 됩니다. 나는 또 과분한 사랑을 받고만 있을 듯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말뿐일 듯 믿지 못해서 죄송함에 죄송합니다. 나에게 가능한 말이 더 없지만 나는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랑받을 겁니다. 그러나 자꾸 말하고 싶은 한마디는 내가 아는 척 깨끗한 척 이야기했지만 사실 내가 나쁘다, 나는 근데 원래 나쁘다 하는 변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받으며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안에 내가 꼭 붙잡아 기억하고 싶은 한 사실은 내가 사랑받고 있음입니다.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부디 저를 깨끗이 남김없이 죽이시고 오직 제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만 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조차 제 마음만으로 하지 못하니 부디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능력 주사 노력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사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행

박재미 집사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8)

지난 몇 년간, 하나님은 제가 의지하던 세상적 줄을 하나씩 거두시는 것 같았습니다. 달리고 싶은데 걸으라 하셨고, 걷고 싶을 땐 앉아 쉬라고 하시는 것 같았죠. 실 줄 모르는 경주마 같은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서, 기다리라 하시는 아이러니... 맘이 바쁘는데 조바심 내지 마라고 하시고, 걱정 되는데 근심하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만큼 하나님의 타이밍과 저의 타이밍은 틀려왔습니다.

결혼과 육아 그리고 긴 타지 생활로 제 인생에 생긴 이 심표는 궁금증과 답답함을 낳았고, 모든 것이 아름답던 첫사랑 같은 믿음도 시들해졌습니다. 교회의 문턱 넘기가 마음에 부담되던 어느 날. 저를 부르신 그 곳이 썬플라워였습니다. 처음 가본 ECC홀에서, 저는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 일만 해결되면, 이것만 잘 되면...’ 이런 생각들로 높은 곳을 바라보던 저에게 하나님은, 지금 가진 것을 충분히 누리고 그 속에서 제가 행복하길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의 개성을 존중하시고 사랑스럽게 키워내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며, 조건 없던 저를 향한 사랑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하는 아이들의 아름다운 마음속에서, 퇴색된 제 믿음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시간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 믿음의 정체와 하나님의 부재라고 느껴지던 날들, 썬플라워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마음에 평안이 임한 건 분명 축복이었습니다. 어른들의 찬양도 좋지만, 저는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며, 내 안에 있던 믿음이 작은 한 아이를 보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스스로를 가두며 함께 하시는 분을 보지 못한 그 아이를, 더 큰 믿음으로 불러내시려 주님이 손 내미시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은 ‘동행’ 라는 단어를 묵상할 것입니다. 당장 눈 앞의 무언가를 해결하길 원하는 우리와 달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들을 아직도 물음표로 남겨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물음표를 우리 인생에 그려 넣으시는 이유, 어떤 기도는 보류하시는 이유, 그리고 앞서 나가지 말고 함께 발맞추어 걷자고 제안하시는 이유...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자란 믿음으로 202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소망을 두길 원합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요한복음 21:12a)

저는 가끔 월든 호숫가를 걷습니다. 사진도 찍고 새나 다람쥐에게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소로우가 살던 오두막집 터를 지나갈 때면 그와 호숫가를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상상을 해 보곤 합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설명 현존치 않는다 해도 그가 살던 곳에서 서성거리고 있노라면 왠지 조금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갈릴리 호숫가를 가 보았습니다.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사진도 찍고 그곳의 삶의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볼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호수에 발을 대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몸을, 그리고 머리 끝까지 물속에 넣어봅니다. 물은 호수위를 걸으신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지신 그분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청년시절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 갈수록 더욱 알고 싶었고 기도를 통해 수없이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지만 그분은 오직 침묵으로만 답하셨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 신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할 때도 주님의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대에 살며 그분께 직접 질문할 수 있었던 행운의 몇 분을 성경속에서 찾습니다. 저와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누구냐에 따라 답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묻습니다 (눅 10:25).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 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부자 청년이 예수께 묻습니다 (마19:16).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처음에는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주십니다. 청년이 더 깊은 답을 구하자 이르시기를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는 깊이 상심한 베드로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상상컨데 그는 침묵 속에서 주님께 이렇게 묻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 저 같은 못난 인간이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식사 후 예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고 하시며 베드로가 후에 맞이할 죽음에 대해 알려 주십니다.

법을 중요시하는 율법학자에게 가장 큰 율법을 알려 주십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지켜야 할 가장 최소한의 책임 곧 신자들의 기본적 의무입니다. 선한 일을 중요시하는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라고 하십니다. “나누어 가지라” 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주라” 고 하십니다. 죄책감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과 함께 그가 맞이할 죽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인생에 대한 유사한 질문이었지만 묻는 자가 달랐고 주어진 답이 달랐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율법학자에게는 “네 몸과 같이”, 부자 청년에게 “네 몸보다 더”, 베드로에게는 “네 몸이 죽도록”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새벽에 일어나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 봅니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과의 아침 식사. 그들을 먹이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들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과 예수님의 답을, 그리고 저의 질문과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 고백해 봅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물어볼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껏 저의 질문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보다는 저 스스로를 사랑하기에 생겨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아침 햇살이 고요한 갈릴리 호수를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가르쳐 준 예수님은 못난 자를 잡아 주시고 품어 주시는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지금보다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아멘



시험을 받으시더라: 들리심

이영길 목사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요한복음 12: 27-36)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절망하셨을 줄 압니다. 믿고 창조하고 온 세상을 맡기기 위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당신의 뜻을 어겼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 나름에는 완전하게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기뻐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옳거니 내가 아들을 보내 십자가를 지게 하면 되지” 금방 생각이 떠 올랐을까요? 앞이 캄캄해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들 삶 속에 때로는 캄캄해지는 때가 있죠. 우리가 경험했던 것 보다 더 캄캄하면 캄캄했지….

하나님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이기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이 아담의 죄를 대신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더 거쳐야 하셨습니다. 주님은 군중에게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문맥상으로 보면 주님의 기도가 거절당한 것입니다. 주님은 무슨 연고인지 이 때를 면하게 해 달라고 하셨고 그런데 ‘그러나’ 하는 것을 보니 기도는 거절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생전 처음 쓴 잔을 마십니다. 차가운 거절! 머리로는 이해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세포 하나하나 난생 처음으로 느껴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순간입니다. 거절당함!

이로써 주님은 철저히 광야를 체험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곳…! 아울러 기도 응답도 없는 곳… 그런데 주님의 위대함은 바로 그 거절의 응답을 순수이 받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를 대신 지어야 하기에… 그래서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절망 가운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거절당하기 위하여 광야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절당한 자의 고백을 들어 볼까요? 32,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거절당했기에 당신은 땅에서 들려져야 할텐데 그 때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거절당하심을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시지 왜 땅에서 들린다고 표현하셨을까요? 그렇다면 ‘들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좋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도 계속 불평하고 반항합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불 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불 뱀에 물려가면서 절망에 빠집니다. 어쩔 수 없이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 못지않게 절망에 익숙하신 하나님, 아담 이후로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절망을 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는 하나님은 또 다시 자비를 베풀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구리로 불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어 높이 달아 올리게 합니다. 불 뱀을 보는 자마다 나음을 입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은 비로서 불 뱀의 비유를 통해서 당신이 불 뱀처럼 들려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외로움과 하나님의 아들의 거절당함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외로움과 거절당함의 고통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제 아무리 죄를 지었을지라도 불 뱀에 물렸을지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도리어 기가 막힌 경험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계획에도 없었던 당신의 아들을 세상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광야 한 가운데서 당신의 아픔과 절망을 안고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바로 불 뱀에 물린 그곳에서 놀라운 빛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도 놀라셨을 줄 압니다. 불 뱀에 물린 자들이 빛을 발하는 것을 보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하나님은 이번에는 말씀도 못하고 혼자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지 않으실까요?

<2019. 4.14- 종려.고난 주일 설교 중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처방전

최윤희 집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1-3)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이른 아침에 특히 기침이 심하고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해요. 두통도 좀 있는 것 같고 목이 많이 부어서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요.”

며칠을 앓다가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서 이런 저런 증상들을 말하고 이름 모를 약을 처방받아 약을 타서 오는 길엔 왠지 이미 받은 나은 듯한 기분이 든다. 아직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미국 살이는 이런 재미도 없으니 일단 아픈 대로 아프다가 나아지겠지 하며 타이레놀과 애드빌로 며칠 더 버티 본다. 남편은 처음 며칠은 “에고 고생이 많네, 내가 도와 줄 건 없어?” 하더니 삼사일이 지나도 나아지는 기미가 없으니 그런가보다 하는 것 같다. 내심 서운하다. 그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서운하다.

아들은 그 마저도 눈치가 없다. 새해부터 위염이 도져서 찬밥에 물을 부어 죽을 끓여 먹으며 이틀째 버티고 있는 나에게 와서 “엄마 라자나 먹고 싶어요.” 속으로 ‘네가 사람이냐?!’ 하면서 잠시 누웠다 다시 일어나 냄새 때문에 다시는 먹기 싫었던 위장약을 들이키고는 야채를 썰고 면 삶은 물을 올린다.

그러던 어느 날은 괜히 마음이 아팠다. 눈물이 났다. 갑자기 짜증도 나고 화가 나기도 했다. 며칠동안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가까운 곳에 알아 둔 동굴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영원히 나오고 싶지 않은 기분이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 생각해 본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 몸은 아픈 데가 없는데 반쯤 정신은 나가있다. 그런데도 아침은 오고 아이들 도시락은 싸야 하고 일단 일어난다. 습관처럼 유튜브에서 ccm을 찾아 눌러 놓고 냉장고 문을 열어 본다. 아무 생각 없이 아침 준비를 하던 중에 갑자기 들려오는 가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머릿속에 갑자기 많은 생각들이 스치면서 며칠 동안 나를 누르고 있던 뭔가가 사라지고 울컥 하며 솟아오르는 힘을 느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반쯤 아니라 다 나왔다.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 처방전으로 나는 그날 아침 길고 어두웠던 그 동굴에서 나올 수 있었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잊고 있었네요.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매일 아주 잠시라도 주님을 만나고 느낄 수 있게 해 주세요.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9)

- 이번 생은 지옥 같아...
- 하긴 ‘타인은 지옥’이라는 드라마도 있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털어 놓은 고단한 삶의 무게가 너무 커 보였습니다. 실없이 드라마 이야기로 자리를 마무리하고 돌아섰지만 마음 한 편이 계속 아려 왔습니다. 가까운 관계가 어긋나면 참 힘이 듭니다. 서로에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악순환 속에서 삶은 그 자체로 고통이며 지옥입니다. 서로를 죽일 듯이 미워하고 오죽하면 분노와 좌절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일어나겠습니까? 하지만 조금 거리를 두고 보면 이러한 고통은 대부분 나 자신의 어리석음과 집착에서 나옵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니 사랑이나 행복은 너무 멀어 보입니다.

이 지옥 같은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집착과 무지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다스리는 방법은 주님의 품 안으로 성큼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쉬면서 사랑받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운을 차리고 나서 내 주변부터 정리합니다. 가까운 이들을 쉬게 하고 사랑하고 회복되게 하면 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용서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응어리를 풀려고 애쓰다가 힘들고 지치면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서 쉬면서 사랑과 회복의 은사를 누립니다.

오래전 성경공부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사랑이나 행복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그 사랑 안에서 들어가서 누리고, 그 행복을 맛보며 사는 거다.”

사랑은 우리가 가지거나 소유하는 그 무엇이 아니었구나! 깨달음을 얻었다고 기뻐했지만, 여전히 인간적 지식이나 이성 만으로 위대한 사랑의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없다고 고민하지 말고

사랑을 머리로 알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그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맛보고 느끼고 즐기고

무엇보다, 그 큰 사랑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외롭고 지친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평온을 누리도록 허락 하소서. 아멘!



겸손하심

김미희 교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29)

지난 해 이맘 때에는 집사님들과 함께 사순절을 생각하며 스킷의 스토리를 구상하고 연습했었다.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이었지만 참 오래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

예수님의 길...

그리고 성도의 길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리라고 그분의 구원자되심을 믿고 성도로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순절 보내기를 이야기로 구성해서 쉼의 밤에서 나누었다. 표현되어 나온 결과물은 좀 영성했지만 그것을 준비하며 묵상했던 시간들이 나에게 감사였고 은혜였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 받기를 거절치 않으시고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생각한다. 올해의 사순절의 예수님은 ‘겸손하심’을 묵상케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기도 한 당신의 정당한 모든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직 선하심으로 묵묵히 순종하시며 약속을 지켜나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 중에 빠져 예수님을 너무 쉽게 망각해 버리는 나를 돌아본다. 자신을 드러내야만 손해보지 않고 그 세 세상을 약게 잘 사는 거라는 세상의 속삭임에 넘어가버린 나를 돌아본다.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말씀을 보지는 않았는지 조심스럽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간절히 바란다. 스스로 겸손하여 지신 예수님,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기도 속에 진짜 낮은 자리에도 처할 수 있는 겸손함을 거절치 않기를 기도한다. 예수님처럼 순종하진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누리려는 나의 오늘의 이기심에도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주셨음에 또 한 번 감사드린다.

겸손함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피조물로서 주님의 모습을 따르고 싶습니다. 자꾸 비틀거리고 반항할 때도 많지만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섬기는 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베드로의 세번 부인

윤원길 장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밤 닭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26:34)

베드로는 누구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답하여 예수님께 “네가 복이 있도다” 칭찬을 받았던 그였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대제사장 집에서 심문 받으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으나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었다.

그곳에 있던 조그마한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말하니 그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다.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라는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였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시험에 빠졌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본다.

첫째로는 자신을 너무 과도히 평가한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죽어도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하였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셋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세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를 비롯해 세 제자들은 잠자고 말았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지만 기도하지 않다가 결국 시험에 빠졌다

셋째로 베드로는 심문 받으시려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였으나 멀리 서서 따랐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는 내 뒤를 바짝 따르라는 말씀인데도 멀찍이, 정말 따르는 자 인지 안 따르는 자인지 모르게 가다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이면 대체로 예수 믿는 성도들과 같이 있는 것이 맞다. 세상에 속한 자들과만 같이 하다가 믿음 잃기 쉽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믿음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주님 가신 길 함께 가까이서 걸으며 이웃 성도들과 같이 손을 맞잡고 걸어 나가면 주님 부활하심 따라서 우리도 기쁨의 부활 생명을 받으리라 믿는다.

사순절 동안에 겸손히 기도 드리며, 성도와 함께, 주님과 더 사귀며 동행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최정우 집사

“제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되더니,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가복음 15:33-34)

벌써 두어 해 전 쯤이다. 빛과 공기가 사라지고, 생명이 소멸될 것 같았던 시간이 있었다. 의식적으로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어야 했던 시간이었다. 나를 짓누르던 그 부재의 무게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던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애썼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통곡해야 했던 예수님의 절망을 내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그 시간 나를 위로한 건, 그렇게 절규하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그 고통의 울부짖음이 나의 상처를 감싸고 어루만져주었다.

비탄과 고통에 울부짖는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위로 받고 소망을 되찾는 역설을 나는 설명할 길이 없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치유를 경험했다.

세상이 빛을 잃었던 그 시간, 버림받은 자의 지극한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외치던 예수님. 그 외침이 실은 우리를 향하고 있었다는 걸, 그 절규가 실은 완전한 사랑의 고백이었다는 걸, 이제야 나는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다.

주님, 제가 어둠 가운데 홀로 있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God Is Our Savior (찬양곡) Natalie Hwang(황은하, YG)



“ But God, being rich in mercy, because of the great love with which he loved us, even when we were dead in our trespasses, made us alive together with Christ—by grace you have been saved— and raised us up with him and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places in Christ Jesus” (Ephesians 2:4-6)

Sitting here for a while
Hoping to be myself
Being lost in the wild
I'm just hoping
To get rescued
Just praying to God.

(Chorus)

Because God is our savior
No one else is like him.
He died, on the cross
Just to wash us from our sins

Our sins were very great, By His grace, we are saved
His love, our praise
We're lost
So he will guide us.

(Bridge)

He is powerful, He is loving
He is caring and generous.
For us, just for us.

I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 have done for us in this beautiful world that you have created. Please bless us and we thank you for being our rock, redeemer, and our savior. Amen



무덤에 달려가서...

이영길 목사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시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
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그들이 예수의 말
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누가복음 24:1-12)

보스턴에 드디어 봄이 왔는데 주위에는 온통 부활의 증인들이 가득참을 봅니다. 봄을 맞이하여 모든
꽃나무와 화초들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파리 하나 하나 새싹
하나 하나를 보면 모두 outrun하는 모습입니다. 제일 빨리 달려려는 기운이 역력히 보입니다. 모든
꽃 나무들은 주위를 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outrun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아름다운 꽃이 피고 끝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보스턴에서 살았더라면 꽃나무로 부활의 삶을 증명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 보았
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부활
의 놀라운 세계가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부활의 주님을 향해 달리는 자들에게... 부활의 세계
는 머리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달리는 자들만 누
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다음은 같이 말했습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은 적극적으로 부활을 믿고 의도적으로 죽음에서 벗어나는 생명을 선택하는 곧
생명이신 예수의 삶을 독차지하려는 것이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활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부활의 놀라
운 세계를 독차지하는 것입니다.

시카고 교외에 사는 Steven과 Jimmy라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가정 환경도 불우해서 정
말로 서로를 의지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한편 둘 다 높은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스티브는 하늘을 나는 세계 최고의 비행기 pilot이 되는 꿈을 갖습니다. 한편 지미는 올림픽 선수가
되어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되는게 꿈이었습니다.

반면 어머니들은 둘의 꿈을 접게 합니다. 스티브 엄마는 “어떻게 비행사가 돼? 할아버지처럼 공장에
서 일 해야지.” 지미 엄마도 매한 가지입니다. 둘 다 엄마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더욱 자신의 꿈을 펼
쳐가려고 합니다. 둘이서는 서로 외칩니다.

“I want to fly!”

“I want to run!”

그런데 어느 날 지미가 호수에서 아빠와 수영하다가 호수 바닥에 머리를 부딪칩니다. 허리가 상하면
서 다리를 못 쓰게 됩니다. 지미는 wheelchair 신세가 돼 버렸습니다. 며칠 후 스티브를 만나 말합
니다.

“I still want to run.”

스티브는 답합니다.

“I still want to fly.”

스티브는 운동장에서 지미의 wheelchair를 밀어주며 서로 외칩니다.

“I want to run.”

“I want to fly.”

몇 년이 흘렀습니다. 친구들은 서로를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지미는 스티브가 비행사가 될 것을..., 스티브는 지미가 올림픽 선수가 될 것을... 그런데 지미가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편지 왕래가 있었지만, 얼마 후 끊겼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 주었습니다. 17년이 흘렀습니다. 스티브는 공군사관학교를 마치고 비행사가 되었습니다. 한편 스티브는 지미 생각을 종종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아침 스티브는 비행준비를 마치고 객실에 들렸습니다. 스티브는 자기가 태우고 가는 승객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서 입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Jimmy Rowden?”

“Steven?”

지미가 pilot인 스티브를 보며 말합니다.

“너는 꿈이 이루어졌네!”

지미가 계속 말합니다.

“너 나를 위해 기도했니?”

“그럼 지금도...”

“나도...”

스티브는 아직 뛰지 못하는 지미에게 속으로 미안한 생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지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셨어.”

스티브는 의아해합니다. 그 때 지미는 자신은 휠체어를 타고 경기를 하는 스페셜 올림픽에 출전하려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소리를 높입니다.

“I want to run.”

“I want to fly”

그들은 사실 그들 어머니의 생각을 outrun한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그들의 꿈을 접으라고 늘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부활의 주님은 부활을 믿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outrun하길 원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을 outrun하길 원합니다. 그 때 진정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의 사건은 주님께서 outrun한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outrun하셨습니다. outsmart하셨습니다. 아울러 주님은 죽음을 outrun하셨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합니다. 인간의 죄를 overpower하셨습니다. 인간의 악한 죄성이 주님의 능력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사탄이 보여주는 떡을, 천하만국을, 높은 곳을 out fly하셨습니다.

그래서 넓고 넓은 부활의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넓고 넓은 부활의 세계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의 세계를 향하여 outrun하는 자들을 기다리십니다. 함께 outrun하십시다.

<2019. 4.21- 부활 주일 설교 중에서>





